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가 연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of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in
Mother-Child Theraplay
: Focused on the home-based intervention

2018년 0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가 연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가 연

이가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정 승 아</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권 해 수</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 지 현</u>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8
II. 이론적 배경	9
A. 다문화가정	9
1. 다문화가정의 개념	9
2. 다문화가정의 현황	10
3. 다문화가정의 특징	10
4. 베트남 다문화가정 현황 및 특징	11
B. 다문화가정 모-자녀 상호작용	12
C.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13
D. 모-자녀 치료놀이	15
1. 모-자녀 치료놀이	15
2. 다문화가정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모-자녀 치료놀이	16
3. 가정 중재 모-자녀 치료놀이	17
III. 연구방법	20
A. 연구대상	20
B. 상호작용 평가 도구	21
1.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21
2. 가족 협동화 그리기	22

3. 양육행동 척도	23
C. 연구절차	24
D. 자료분석	27
E. 모-자녀 치료놀이 계획	27
1. 상호작용 평가	27
2. 개입전략	30
3. 목표	33
IV.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및 과정	35
A.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35
B. 과정 및 분석	42
1. 초기(1-2회기)	42
2. 중기(3-6회기)	45
3. 후기(7-8회기)	51
V. 연구결과	55
A. 상호작용의 변화	55
1. MIM 사후검사	55
2. 가족 협동화	56
B. 양육행동과 가정에서의 변화	59
1. 양육행동의 변화	59
2. 가정에서의 변화	60
C.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상호작용 변화과정 및 변화요인	63

1.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나타난 변화과정	63
2.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요인	72
VI. 논의 및 결론	77
A. 요약 및 논의	77
B. 의의 및 제언	83
참고문헌	85
부 록	102

그림 목차

<그림 1>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에서 이루어지는 개입 전략	31
<그림 2> 가족 협동화 사전 사후	58
<그림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화	60

표 목차

<표 1> MIM 과제	22
<표 2> 양육행동 척도 측정변인 및 점수범위	24
<표 3> 연구절차	26
<표 4>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36
<표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자녀 치료놀이 실시 전과 후의 양육행동 변화	60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in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of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in Mother-Child Theraplay : Focused on the home-based intervention

Lee Ga Yeon

Advisor : Prof. Oh Ji-Hyun,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as a result of Mother-Child Theraplay focused on the home-based intervention in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other and child of one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and 8 Mother-Child Theraplay sessions that were called to prove to be effective for the formation of parent-child attachment based on theraplay were conducted in the hom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Mother-Child Theraplay centering on home intervention,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factors of change were qualitatively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evaluate interaction changes we conducted Marschak Interaction Method evaluation (MIM), family test by Collaborative Drawing Technique (CDT), and parenting behavior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vestigated therap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contact, emotional intimacy, accommodative relationship, and changes in mother initiative were noted. Through parenting activities a pleasant experience of physical contact and emotional intimacy were promoted,

has been formed a receptive relationships, and were promoted posi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hat led to changes in maternal initiative.

Second, the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were noted.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re has been a change that improved reasoning her guidance and parent involvement and intimacy. It was also effective in terms of driving mother-child interaction changes at home.

Third, by the analysis of the process and the factor of changes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ed at home Mother-Child Therapla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changes that were noticed.

This study confirmed that Mother-Child Theraplay focused on the home-based intervention is effective in changing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of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단일문화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김연숙, 2016).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평균 10.5%로 나타났으며, 결혼한 열 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정정화, 2014).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유승애, 이지현, 2009), 행정안전부(2012)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2005년 6,121명에서 2012년 168,58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만 5세 이하 유아는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의 51%를 차지하고 있어(행정안전부, 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립, 안효진, 이시자, 2011).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언어와 사회, 문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신혜정,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리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오성배, 2005; 송미경, 이은경, 신효정, 2009).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출신 국가의 관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때 순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설동훈, 2006;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 이중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부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의 자녀 양육방식을 잘 모를뿐더러 정보도 빈약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혼란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우울하고(이미란, 2013),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란, 2013; 이은경, 2013).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저하로 이어져(황상심, 정옥란, 2008),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낮은 양육효능감을 갖게 한다(최연실, 2007).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를 말하며, 양육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적절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Crnic & Greenberg, 1990; Patterson, 1990).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이며(Bandura, 1989),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Jhonston & Mash, 1989; 신숙재, 1997).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더욱 융통성 있고 일관된 행동을 하고 보다 수용적이며 비 처벌적이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높다(Bandura, 1982; Bryanton, Gagnon, Hatern & Johnson, 2008; Coleman & Karraker, 2003; Gerdes et al., 2007; 문혁준, 1999). 반면, 양육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효능감이 높은 부모에 비해 문제 상황에서 더 비판적이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한다(Bandura, 2006; Bryanton et al., 2008; Gerdes et al., 2007; Harty, Alant, & Uys, 2006).

또한,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점자, 2015).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아동 발달의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Landreth, 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된다(Belsky, 1984). 유아의 사회성은 유능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그런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민혜영, 1998), 사회성

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수용력, 정서 건강,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형성능력, 기관적응력이 높다(Farajian, 2012).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강병재, 2005; 손남숙, 이숙희, 2008; 안경숙, 양지애, 2014; 최정아, 2007),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Kim & Stevens, 1987).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변인 중 최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Dadds, 1987).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모-자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관계기초를 형성하고 성격, 가치관, 행동 등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의 기반이 된다(남정아, 양명숙, 2013).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특히 유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아기는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결정적 시기’로서 어머니의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방식과 애정적인 신체접촉을 포함한 모-자 상호작용은 이후 아동의 성격발달, 대인관계, 적응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정아, 양명숙, 2013). 반응적인 어머니의 모-자 상호작용 특성들은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곽아정, 1993), 이후에 학교적응이나 사회적 발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희, 2003).

반면에 모-자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방식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학령기 아동의 문제 행동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된 부모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원인이며(Campbell, 1995), 만약 부모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었다면 아동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또한, 어머니가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경우 자녀의 향후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obo, Barnard, & Coombs, 1992).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들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기에 겪게 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archand & Hock, 2003).

다문화가정의 모-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도 어렵고, 함께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또한,

박임자, 이경숙(2012)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반가정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민감성과 유아의 행동특성과의 관계에서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민감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정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질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동안 다소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자극을 덜 제공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서 6세 이하 연령이 전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유아기의 모-자 상호관계 속에서 잠재되었던 발달과 적응상의 어려움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0).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발달수준이 뒤쳐져 있고, 사회성 발달 수준이 낮으며, 이후 학교에서 높은 중도탈락률, 부적응, 낮은 성적 등을 보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연구가 있다(조영달, 2006; 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김경택, 2005; 서정아, 2016).

한편,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총 41,238명에서(행정안전부, 2012) 57,464명으로 증가하여 국적별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2015) 향후 학령기에 접어드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타 국가 권의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외국인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 정도와 가정생활 화목 정도가 낮고,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영주, 2007; 전경숙, 송민경, 2011) 사회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은 대부분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커 남편한테 자녀 양육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지며, 학습지도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채옥희, 홍달아기, 2007). 또한, 베트남 이주 여성은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기타 국가의 결혼 이주여성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진숙, 2007),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자녀의 요구에 도움을 주는 것을 어려워해(서문희, 2012)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자녀 양육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민정 외, 2006; 전홍주 외, 2008; 탄티튀히엔, 2006).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이 지닌 언어,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 등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응에 기초가 되는 모-자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지원의 기회를 마련하는(남정아, 양명숙, 2013)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유아는 초기 모-자 상호작용의 건강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아 단독의 개입 프로그램보다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Guralnick & Neville, 1997),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가족 중심지원이 필요하다(김민화, 신혜은, 2008). 따라서 다문화가정은 모-자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방법적으로는 활동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유아의 연령 및 어머니의 언어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신체접촉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언어 사용은 최소화하는 활동 중심의 중재가 효율적일 것이다(정계숙, 2011).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적 · 치료적 접근법인 치료기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놀이는 Jernberg가 고안하였으며, 친밀한 신체접촉이 많고, 즐거운 상호작용 특성을 보이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하였다(박랑규, 윤진영, 2008; Jernberg, Booth, 1999). 건강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방식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 2012). 또한, 치료놀이는 언어적 상호작용보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신체접촉 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모-자녀에게 더 적절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치료놀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부모로서 적응기술과 대처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다(Mahy, MacQuarrie, 2000). 또한, 모-자녀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일반유아(이상희, 2003)와 발달지체 유아(김정혜, 2005), 걸음마기 자녀(박은희, 2009)에게 실시하여 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가 있으며, 불안정 애착 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하은실, 2007), 부적

응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 적응력 개선(허진, 2006) 등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다.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는 치료놀이는 아동에게 건강한 양육과 공감, 즐거움, 도움을 제공해주고, 관계와 애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윤은정, 2006).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자녀 치료놀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자 애착 증진을 위한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박랑규, 윤진영, 2008), 모-자 치료놀이를 적용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 2012), 사회적 관계 문제를 가진 유아 모자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정계숙, 2011), 모-아 치료놀이가 양육효능감과 안정애착,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홍은미, 2014), 집단치료놀이가 모-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강보라, 2009), 모-아 관계증진과 배려행동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놀이에 관한 연구(임준구, 2016)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집단형태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접근의 모-자녀 치료놀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집단 형태의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변화과정을 면밀하게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애착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놀이 방법이나 구조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성격특성과 동기가 다르고, 자녀의 이해에 적극적인 부모가 있는 반면, 저항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필요한 욕구와 특성이 다르며, 적절한 개입방법도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면,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정계숙(2011)은 서로 다른 욕구와 조건을 가진 다문화가정에게 개별화된 접근이 중요하며, 다문화가정의 개별적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가정중심의 전달체계(Powell, 1993)로 찾아가는 서비스(홍미기, 2009)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낯선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방문의 장점은 아동에게 가장 친숙한 환경과 친숙한 사람이 중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부모 또한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자녀에게 중재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중재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친숙한 환경 안에서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고, 일반화할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김지수, 2017).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한 정계숙(2011)의 연구에서 가정방문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양육 상황에서 배우는 양육 행동은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과 같은 비언어 접촉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상기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자녀 치료놀이의 개별적 접근의 사례연구로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실제적인 양육 상황에서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을 주는 양육 방법, 놀이 방법을 코칭하여 가정에서의 변화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코칭(coaching)은 조기개입 방법 중 하나이며, 양육자와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상호작용 방식이자 지원방법이다(Kemp & Turnbull, 2014; Raver & Childress, 2015; Rush & Sheldon, 2011). 다문화가정에게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을 통한 예방적 접근의 코칭을 적용하여 발달과 사회적응에 기초가 되는 모-자녀 상호작용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의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한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와 가정에서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할 수 있으며 가정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모-자녀 치료 놀이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모-자녀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정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변화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A.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2014년 총 주민등록인구는 51,327,916명으로 이 중 우리나라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를 통칭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741,919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3.4%에 해당한다(외국인정책, 2016).

다문화란 현대사회에서 생겨난 용어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이다(장영희, 199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정과 유사한 용어인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말이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가정이란 점을 강조하는 데 비해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가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국제결혼가정은 국제결혼으로써 형성된 가정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룬 가정과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이주한 가정을 말한다.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그 가족이 한국에 함께 입국한 가정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말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의 이주 및 가족 형성으로 범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분류 항목 내에서 다양한 분화 또는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다(양

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제한한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2000년부터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4)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는 149,764명(9.5)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녀의 수도 2009년 99,684명에서 2014년에 183,002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302,692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2007년 1,250명에서 2016년에 1,170명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통계청, 20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 중 6세 미만 45.8%, 6세 이상 11세 이하 31%, 12세 이상 14세 이하 8.9%, 15세 이상 17세 이하 6.5%, 18세 이상은 7.8%로 6세 미만 자녀의 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립, 안효진, 이시자, 2011).

3. 다문화가정의 특징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와 사회생활 적응, 자녀 양육, 부부갈등, 가정이나 이웃의 소외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최은정, 2009).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자신이 자녀에게 무능력하게 비춰지고, 자녀 관계에 벽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박성연 외, 2007; 송미경 외, 2007). 광금주(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더 거부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강석광, 2007)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발생하는 가족,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외모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조영달, 2006; 오성배, 2005). 또한, 부모와의 밀착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언어발달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홍정미, 2008). 성미영, 김정현 등(2010)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안정애착 비율이 낮고, 불안정애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4. 베트남 다문화가정 현황 및 특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에 따르면, 국적별 결혼 이민자 현황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자 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기준으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은 37,121명으로 조사되어(행정안전부, 2012) 베트남 다문화가정은 매년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 8세 이하의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총 41,238명에서(행정안전부, 2012) 57,464명으로 증가하여 국적별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5).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향후 학령기에 접어드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모에게서 공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친구에게 부모를 알리기 싫어하는 등 타 국가 권의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외국인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으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 정도와 가정생활 화목 정도가 낮고,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2007; 전경숙, 송민경, 2011).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Ha Minh Thanh(2005)의 연구에서 베트남 어머니들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부 갈등 및 가족 간의 상호 이해 부족(윤형숙, 2004; 김유경, 2005; 이해경, 2005)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대부분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이며, 경제적인 이유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이유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팜티웬짱, 김영순, 박봉수, 2014). 하지만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결혼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에 방해요소가 된다(조현미 외, 2017).

특히 베트남 다문화가정은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커 남편에게 자녀 양육 도움을 받지 못하며, 자녀가 클수록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학습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채옥희, 홍달아기, 2007),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수행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이운호, 2007).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기타 국가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진숙, 2007)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문희, 2012)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자녀 양육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민정 외, 2006; 전홍주 외, 2008; 탄티튀히엔, 2006).

B. 다문화가정 모-자녀 상호작용

생의 초기부터 어머니와 자녀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들은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며 발달해간다(Gross et al., 1993).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기에 특히 중요하고(박경자, 김송이, 2007), 유아기 자녀와 어머니 간에 주고받게 되는 상호작용은 유아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송요현, 2009). 또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해결력,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자, 1990; 김이선, 1991; 정지나, 1998; Matas, Arend & Sroufe, 1978; Olson, Bates &

Kaskie, 1992; Pianta & Harber, 1996).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enham, Renwick, & Holt, 1991). 또한, 상호작용 동안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고 한계를 설정해주는 어머니의 행동특성이 이후 취학 전 시기와 학령초기 유아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을 예측한 연구도 있었다(Pianta & Harbers, 1996). 다양한 품행문제를 보였던 아동들의 예후를 살펴본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놀이를 한 시간이 이후 유아의 품행문제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Gardner, Ward, Burton과 Wilson, 2003). 즉,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한 시간은 이후 품행문제의 개선을 예측하고, 어머니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후 품행문제의 악화를 예측하였다(송요현, 2009).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어려워하며, 함께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정서표현 행동이 다소 부족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순간에 충분히 칭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임자,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모-아 상호작용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질이 일반가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다소 수동적이고 아동에게 무관심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전은애, 2008).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은 정서적 교류에서도 서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일반가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2008).

C.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Coleman & Karraker, 1998).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능력을 조직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김연숙,2015).

Teti와 Gelfand(1991)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양육에 적용하여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판단은 부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도우며, 자녀 양육에서 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보았다(전은영, 2004). Ardel과 Eccles(2001)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 전략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사회적, 심리적, 학습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성취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문태형, 2002).

양육효능감의 선행 연구를 보면,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민주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신체적 발달, 자아개념, 바람직한 행동,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는 반면, 효능감이 낮을수록 민주적인 양육도 함께 낮아져 유아의 불안, 분노,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진숙, 한지현, 2004; 김민정, 2009).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적극적 참여하여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을 격려, 적절한 규칙 및 한계 설정하고 통제적 양육행동, 신체적 체벌,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호작용을 덜 하게 된다고 보고했다(안지영, 박성연, 200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우울 정도(남덕임, 2004), 사회적 능력(김현미, 2004), 자기효능감(홍성임, 2006), 자기조절능력(박소영, 2006; 남재희, 2008)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우울 정도는 낮아진다(이경아, 2010)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다른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시작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김오남, 2006; 김도희, 2008)에 적응하기도 전에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가정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최나야,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김현경, 2010). 또한, 언어소통의 문제, 생활 습관 차이, 정보와 관련된 지지체계의 부족(한상영, 2011)과 이외에도 부부생활, 사회적 낙인, 법적 제도적인 차별 및 취업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다문

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들에게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윤초연, 장영애, 2012). 그 결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학업 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높으며(조영달, 2006), 사회성과 성격발달의 문제(김희태, 2001; 오성배, 2005; 박점자, 2015), 편견과 차별문제(서현, 이승은, 2007; 허미화, 2008), 인지발달지연(구효진, 최진선, 2007)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낮은 환경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통해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김연숙, 2016). 최연실, 이순형, 문무경(2008)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지각하게 될 때,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양육방식으로 변화된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나타났다(김민경, 김경은, 2009; 정명희, 2013).

D. 모-자녀 치료놀이

1. 모-자녀 치료놀이

치료놀이(Thraplay)는 1967년 미국 시카고의 임상심리학자 Jernberg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치료놀이의 이론적 입장과 치료방법은 Des Lauriers(1962)의 영향을 받았다(Jernberg,1979). Jernberg는 Des Lauriers와 발달놀이치료(Developmental play therapy) 창안자인 Brody의 치료방법과 내용을 도입하여 ‘건강한 부모-영아 상호작용모델’을 창안했다(성영혜, 2000).

치료놀이(Thraplay)는 관계를 증진시키는 상호작용 중심의 접근법이고(Jernberg & Booth, 1999), 신체접촉을 통해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심리치료기법으로(신현정, 2008), 치료놀이에서 ‘놀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성영혜, 오지현, 홍정희, 김송아, 2009).

Jernberg는 건강한 부모 자녀가 일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구조, 도전, 개입, 양육의 원리를 발견했다(Jenberg & Booth, 1999). Jernberg(1999)

에 따르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속에는 ‘세상은 안전하다’는 의미인 구조(Structure), ‘너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인 도전(Challenge),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의미인 개입(Engagement),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의미인 양육(Nurture)의 원리가 있다. 더불어 구조, 도전, 개입 양육의 원리에는 접촉이 반드시 요구된다(신현정, 2008). 치료놀이에서는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요소인 애착 관계의 토대 위에 ‘지금-여기’의 구체적 경험과 신체적 접촉을 중시하는 치료방법이다(이상희, 2005).

치료놀이의 효과를 입증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Jernberg의 연구(1979,1990)에서 치료놀이가 입양아와 양부모들 간의 애착 형성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이상희, 2005). 그 이후에도 많은 치료놀이 연구들은 치료놀이가 모-아 간 애착 형성 및 상호작용 증진과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정혜, 2005; 김윤경, 2006; 박랑규, 1999; 전애영, 2004; 윤미원, 2005; 이상희, 2003; 윤정희, 2006; Booth & Lindaman, 2000; Jernberg & Booth, 1999; Lindaman, 1996; Makela et al, 2004; Rubin, 1996). 치료놀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Jernberg & Booth, 1999) 상호작용의 증진이라는 치료놀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놀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된다(신현정, 2008).

2. 다문화가정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모-자녀 치료놀이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을 재발견할 수 있는(성영혜, 이창미, 김연진, 김유진, 신현정, 2004) 신체접촉을 통한 놀이 활동이다. 치료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신체접촉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동과 어머니가 건강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곽혜숙, 2016). 모-자녀 치료놀이는 어머니의 부모로서 욕구를 발견하게 해주며,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박은희, 2008).

Mahy와 MacQuarrie(2000)는 부모가 치료놀이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건강한 양육자의 역할을 모델링하게 하며, 치료 과정뿐 아니라 부모 상담에 치료놀이

를 적용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기술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이상희(2003)는 모-자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자녀 치료놀이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증진과 또래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음(강보라, 2009; 장애연, 2011)을 입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 2012; 홍은미, 2014)도 있다.

정계숙 외(2012)의 치료놀이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유아들의 관계가 향상되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와의 애정적 상호작용이 높아졌다. 또한,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무표정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었던 유아의 표정이 좀 더 다양해지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유아는 눈 맞춤의 시간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모-자녀 치료놀이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 중재 모-자녀 치료놀이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아동 중심과 가족 중심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 중심 가정방문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에게 직접 중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Hanft & Pilkington, 2000; Raab & Dunst, 2004), 가족 중심의 가정방문은 부모가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Raab & Dunst, 2004).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동에게는 발달의 증진(Clark, 2001; Thomaidis et al., 2000),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증진(Caro & Derevensky, 1991; Clark, 2001; Dawson, et al., 1991; Mahoney et al., 1998), 적응 행동의 향상(Wagner et al., 2002)에 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에게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Caro & Derevensky, 1991; Clark, 2001), 양육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Clark, 2001; Wagner et al., 2002)와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Macphee & Miller-Heyl, 2003),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감소시킨다(Clark, 2001).

가정방문은 무엇보다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 가족의 요구에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성신, 2007). 가정방문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부모는 배운 기술을 일반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경험과 문제를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으며, 교통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 1994; Campbell, et al., 1995). 또한, 가정방문은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 광범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Garland, 1992; McBride & Peterson, 1997).

조기개입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칭이 있다. 코칭(coaching)은 조기개입 방법 중 하나이며, 양육자와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상호작용 방식이자 지원방법이다(Kemp & Turnbull, 2014; Raver & Childress, 2015; Rush & Shelden, 2011). 코칭은 부모교육이나 부모훈련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부모가 양육 기술을 연습 또는 실행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지도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행동을 말하기도 한다(김지수, 2017). 가정방문과 코칭은 예방적 차원의 조기 중재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 하나는 치료놀이이다. Jenberg가 고안한 치료놀이는 친밀하고 신체 접촉이 많으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하여(Jernberg, Booth, 2007),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 방식을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치료놀이에는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해주는 구조, 함께하는 경험을 갖는 개입, 자녀가 성취감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전, 편안하고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양육 차원의 4가지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Maboney와 MacQuarrie(2000)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놀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부모로서 적응기술과 대처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낮선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가정방문의 장점은

아동에게 가장 친숙한 환경과 친숙한 사람이 중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부모 또한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자녀에게 중재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중재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친숙한 환경 안에서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고, 일반화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김지수, 2017).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한 정계숙 외 (2012)의 연구에서 가정방문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양육 상황에서 배우는 양육 행동은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과 같은 비언어 접촉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A시에 위치한 B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모-자녀 상호작용 영향을 많이 받는 걱정적 시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였다.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선정한 이유는 국내 다문화가정 및 국적별 다문화 가정 아동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가 낮아 부적응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이영주, 2007; 전경숙, 송민경, 2011)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모-자녀 치료놀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를 진행하였지만, 한 가정은 가정 구성원의 건강상 문제로 중도 탈락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7세 여아이며, 어머니의 나이는 30으로 국적은 베트남이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2010년에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결혼이주 여성으로 한국에 왔다.

1. 아동

아동은 현재 7살 여아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모와 고모가 아동을 가장 많이 돌보았고, 고모가 자녀를 낳기 전인 2년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이 끝나면 고모 집에 가서 놀았다. 현재도 고모를 좋아하며 잘 따른다고 보고했다. 모는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잘 다가가지 못하고,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모의 보고와는 달리 아동은 활발한 성격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말이 매우 느린 편이었지만, 현재는 말을 잘 하는 편이라고 보고했다. 부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애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부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어려워한다고 보고했다. 모는 아동이 “나 혼자 놀아도 돼.”

라며 혼자서 잘 논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동이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 그로 인한 모와의 갈등이 있다. TV를 못 보게 제지하면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엄마랑 안 살아.”라고 말을 한다.

2.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

모는 30살의 베트남 여성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2010년에 국제결혼을 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왔다. 자신의 성격이 급하고, 강하며, 활발하다고 보고했다. 한국어 공부로 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적으며, 부족한 한국어 발음이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였다. 모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아동이 유치원을 다녀오면 TV를 보지 않고,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로 인한 아동과의 갈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줄까 봐 걱정하였다. 모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였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걱정하였다.

B. 상호작용 평가 도구

1.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모-자녀 치료놀이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로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 Marschak Interaction Method)를 실시하였다. MIM은 모-자녀 관계를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치료놀이 창시자인 Jernberg(1982)에 의해 개발되었다. MIM은 구조화, 개입, 양육, 도전의 4개의 차원으로 범주화된다. 성인이 제한을 설정하고 정돈된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구조), 발달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성취하려는 유아의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도전), 유아의 상태와 반응에 맞추어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개입), 유아의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양육)을 평가하며(서광희, 2012), 부모의 노력에 반응하는 아동의 능력도 평가한다(박은희, 2008).

본 프로그램에서 실시할 MIM 과제는 <표 1>와 같다.

MIM 과제		
1	두 개의 인형 중 하나는 부모가 갖고 하나는 아동에게 주고 함께 인형놀이를 하세요.	개입
2	부모는 블록 한 세트를 가지세요. 다른 한 세트는 아동에게 주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블록으로 모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동에게 "너도 네 블록으로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봐."라고 하세요.	구조화 도전
3	부모와 아동은 각기 종이와 연필을 잡으세요. 부모는 그림을 그리고 아동에게 똑같이 그리도록 격려하세요.	구조화 도전
4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익숙한 놀이를 하세요.	개입
5	부모는 아동을 남겨 둔 채 1분간 방을 떠나세요.	양육 도전
6	부모가 아동에게 로션을 발라주세요.	양육
7	부모는 아동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양육

<표 1> MIM 과제

2. 가족 협동화 그리기

가족 미술 평가는 빠른 시간 안에 가족관계와 역동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2000). 언어표현이 의사소통의 유일한 통로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해준다(송영혜, 2004).

가족 협동화가 사용되기 전에는 투사 그림으로서 동적 가족화가 사용되었다. 동적 가족화는 개인 가족의 기능과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국한되었으나(김광웅 외, 2010). 가족 협동화는 가족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송영혜, 1998). 가족협동화의 절차는 구조화되고 비언어적 상호작용 과제로 진행된다. 크레파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순서를 정한다. 치료자의 '시작' 신호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다음' 신호에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다음 사람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성영혜, 1997). 가족의 움직임을 통해 참여 태도를 관찰하며, 참여자의 노력에 다른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는지, 미완성된 그림에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대로 돕지 않거나 방해하는지, 방해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등을 관찰한다(김광웅,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족 협동화를 프로그램 사전, 사후 검사에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를 알아보았다. 정확성을 위해 검사 시 촬영을 진행하였고, 미술 치료학 박사과정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3. 양육행동 척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rase 등(1978)의 아이오아 부모 양육 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u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도구의 하위영역에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의 합리적 지도(8문항), 제한성(5문항), 애정성(8문항), 반응성(5문항)이 있고,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정말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합리적 지도(Reasoning Guidance)는 자녀가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은 이유를 밝혀주는 것뿐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제한성(Limit setting)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제한영역을 과소 엄격하게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는 양육행동이다. 애정성(Parent involvement & intimacy)은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으로서, 자녀가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해주고 함께 놀이를 하며,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자녀의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행동과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뿐 아니라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이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어머니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라도 자녀가 필요로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행동으로, 반응의 즉각성뿐 아니라 자녀가 암시하거나 표현한 요구에 대한 반응 여부도 포함된다. 양육행동의 변인별 도구의 문항 수와 가능한 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측정변인	문항번호	가능한 점수범위	문항수
합리적 지도	4, 6, 9, 12, 14, 18, 22, 24	8-40	8
제한성	8, 10, 11, 15, 16	5-25	5
애정성	1, 3, 5, 7, 13, 23, 25, 26	8-40	8
반응성	2, 17, 19, 20, 21	5-25	5

<표 2> 양육행동 척도 측정변인 및 점수범위

C. 연구절차

1단계 : 문헌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문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변인보다는 모-자녀 관계, 특히 모-자녀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자녀 상호작용은 유아기에 중요하고,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모-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Jernberg 치료놀이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조, 도전, 개입, 양육의 원리를 이용하여 본 모-자녀 치료놀이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모-자녀 상호작용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법과 놀이법을 알려주어 양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2단계 : 요구도 조사

모-자녀 치료놀이를 계획하기에 앞서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개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센터종사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일반가정의 아이들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발달수준이 느리고, 다른 친구들과

과의 환경 차이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아이와 놀아주고 싶지만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놀아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아이들 또한 어려운 점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게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을 주는 모-자녀 치료놀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한 건강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양육방법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알려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이러한 모-자녀 치료놀이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3단계 : 대상선정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A시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설명과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에 맞게 언어를 최소화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실제 치료놀이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활동들을 보여주었다. 모-자녀 치료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4단계 : 사전면담 및 사전검사

사전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의 기본 정보를 탐색하였고,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사전검사로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가족 협동화, 양육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를 통해 연구대상에 적절한 개입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5단계 : 모-자녀 치료놀이 진행

주 1회, 총 8회기로 가정방문하여 모-자녀 치료놀이를 진행하였다. 1~2회기는 치료놀이에 대한 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료자와 아동이 치료놀이를 하여 모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왔고, 3회기부터 모와 함께하는 치료놀이를 진행하였다.

6단계 : 사후검사 및 사후면담

사후검사로 모-자녀 상호작용 검사(MIM), 가족협동화, 양육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정에서의 변화와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모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절차는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기간	내용
문헌연구 고찰	2017년 1~2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필요성 검토
요구도 조사	2017년 3월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종사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
대상 선정	2017년 4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모-자녀 치료놀이 안내
사전 면담	2017년 5월	기본정보 탐색
사전 검사	2017년 5월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가족 협동화 양육행동검사
모-자녀 치료놀이 진행	2017년 5월~7월	모-자녀 치료놀이 진행
사후 검사	2017년 7월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가족 협동화 양육행동검사
사후 면담	2017년 8월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사후면담

<표 3> 연구절차

D. 자료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고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매회기 모-자녀 치료놀이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였다. 어머니와의 면담은 녹음으로 이루어졌고,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 및 검사내용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MIM과 가족 협동화 사전 및 사후 검사는 녹화된 영상을 전사하여 모-자녀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놀이치료 전문가와 미술 치료학 박사과정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또한, 녹음 및 녹화된 모-자녀 치료놀이 자료를 전사하여 어머니의 면담 내용과 회기에서 이루어진 모-자녀의 비언어적 · 언어적 의사소통을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매회기를 마치고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떠올랐던 생각, 감정, 반성 등을 정리했다. 전사한 자료와 성찰일지, 녹화된 영상을 반복하여 보고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와 의미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의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코딩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놀이치료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도와 감독을 받아 모-자녀 치료놀이를 진행하였다.

E. 모-자녀 치료놀이 계획

1. 상호작용 평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에게 적절한 개입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모-자녀 상호작용 검사(MIM)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다.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 Marschak Interaction Method)는 모-자녀 관계를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구조화, 개입, 양육, 도전의 4

개의 차원으로 범주화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화 차원에서 어머니는 활동을 순서대로 하지 않았지만, 활동이 끝날 때마다 주변을 정리하여 아이가 다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활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보이더라도 “다른 거 할까?”라고 말하며 빨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는 아동이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것은 아동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흥미를 보이더라도 활동을 급하게 끝내 아동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구조화의 차원에서 어머니는 활동이 끝날 때마다 주변을 정리하여 아동이 다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지만, 활동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보이더라도 활동을 급하게 마무리하여 아동이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입 차원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활동에 대한 흥미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보이더라도 활동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이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그리고 싶은 것을 같이 그리거나 아동이 하고 있는 인형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활동에 대한 충분한 흥미를 경험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개입의 차원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흥미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부족하여 활동의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충분히 흥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도전 차원에서 어머니는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이 블록구조물을 완성했을 때, “뚝뚝하다”라고 말해주고,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서 아동과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이 도전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격려를 보이지 못했고, 이는 아동이 활동에 충분히 몰입하는 데 방해를

주었다. 아동이 어머니를 따라 하는 활동에서 아동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어머니는 “엄마 따라 해야지.”라고 말하며 아동의 욕구를 읽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이 하는 활동을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고, 아동의 옆에서 아동이 활동에 충분한 도전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격려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도전의 차원에서는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좌절하지 않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활동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격려와 지지가 부족하였고, 어머니의 적절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다면 아동은 더 높은 성취감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동은 더욱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양육 차원에서 로션 바르기와 먹여 주기와 같은 활동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아동의 마음과 욕구를 알아주는 데 부족한 모습은 아동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종합하면, 사전 MIM에서 어머니는 활동이 끝날 때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아동이 다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좌절하지 않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머니는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격려와 지지가 부족하였고,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보여도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등 과제 수행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서도 아동의 욕구에 대해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는 아동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게 어색해 보였고, 아동에 비해서 에너지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활동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모습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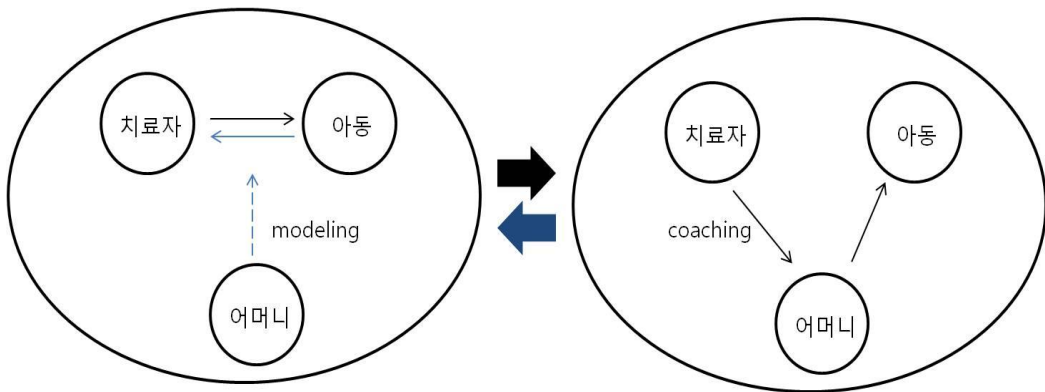
어졌고,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 활동에서도 충분히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방해하였다.

아동은 어머니가 제시하는 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편이었고, 어머니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면 아동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동은 자신이 흥미를 보이는 활동에서도 어머니가 활동을 중단하면 이를 수용하고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개입전략

사전 모-자녀 상호작용 검사(MIM)에서 어머니와 아동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에 매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경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아동 또한 그런 어머니에게 반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검사(MIM)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양육과 개입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 도전 활동을 통해 아동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며, 어머니에게는 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입 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에서 이루어지는 개입 전략

어머니에 대한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며, 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 적절한 격려가 필요했으며, 어머니가 시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했으며, 건강한 모-자녀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회기와 2회기는 어머니가 직접 모-자녀 치료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치료자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여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양육적이고 개입적인 놀이 활동을 하여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적절한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을 코칭하였다. 회기 내에서 치료자가 아동과 먼저 활동을 실시하여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코칭을 통해 어머니가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적절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의 모-자녀 치료놀이는 모델링과 코칭을 반복하였다.

둘째, 어머니는 에너지가 낮은 편이며, 양육적인 활동에 대해 매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에게도 양육적인 경험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양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회기가 끝난 후에 양육 활동을 어머니에게 직접 시도하여 어머니가 충분히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

며, 적절한 격려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치료자와의 관계와 반복된 양육적인 활동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어머니의 구조가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은 어머니가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으며,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료자는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안정된 구조화를 통해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즐거운 놀이를 유지할 수 있게 주도하도록 도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어머니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수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과의 놀이에서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사용하지 않아 아동이 놀이에서 흥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치료자는 모-자녀 치료놀이 활동 중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 및 언어적 개입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치료자는 어머니와 아동의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머니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정에서 하는 모-자녀 치료놀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활용하여 어머니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제 활동을 통해 회기가 끝난 후에도 어머니가 주도하여 아동과의 놀이가 가정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격려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개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매우 어색한 모습을 보였으며, 신체적인 접촉이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어머니와의 애착을 재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치료자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양육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어머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동은 어머니를 자신과 함께 하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어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에 매우 어색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료자는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돕는다. 아동이 즐거워하는 활동에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음을 치료자는 아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놀이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자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어머니와의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놀이 활동은 아동이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치료자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적절한 격려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취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표

치료전략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목표는 첫째, 치료자와 아동의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여 아동과 모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모-자녀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모-자녀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어머니가 모-자녀 치료놀이에 적절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어머니에게 양육을 경험하도록 하고, 충분한 격려를 통해 낮은 에너지 수준을 높여 모-자녀 치료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구조 차원에 따른 활동으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규칙과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구조적인 즐거운 활동을 통해 어머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을 즐거운 놀이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어머니에게 적절한 정서적 반응 방법을 지도하여 아동이 모와의 놀이에 충분한 흥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자는 모-자녀 치료놀이 활동 중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사용하여 모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양육방법과 놀이방법을 코칭하여 모가 양육효능감을 갖도록 돕고, 회기가 끝난 후에도 가정에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신체접촉과 양육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애착 활동을 통해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신체접촉과 양육 활동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개입 활동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도전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IV.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및 과정

A.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모-자녀 치료놀이는 주 1회, 총 8주로 진행하였다. 회기 당 모-자녀 치료놀이와 모 상담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모-자녀 치료놀이는 치료놀이 원리에 맞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은 안전하다’는 의미인 구조(Structure), ‘너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인 도전(Challenge),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의미인 개입(Engagement),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의미인 양육(Nurture)의 원리로, 접촉이 반드시 요구되는(신현정, 2008) 치료놀이 원리이며, ‘로션 활동’, ‘손 닦아주기’, ‘먹여주기’는 모든 회기에 고정적인 활동으로 포함된다. 이 활동들은 가장 기본적인 모-자녀 상호작용이라고 판단하여 매회기에 포함시켰으며, 각 회기의 목표에 맞게 활동들이 짜여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활동을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새로운 여러 활동으로 회기를 구성하기보다는 비슷한 활동들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회기를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모-자녀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양육’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에게도 양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육적인 활동들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회기마다 활동 과제가 주어져 회기가 끝난 후에도 가정에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과제는 각 회기의 핵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 상담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양육방법과 과제 활동 방법 및 놀이 활동을 알려주었다.

회 기	목표	활동
1	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아동이 치료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② 놀이의 즐거움을 통해 아동이 치료놀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③ 모는 치료자와 아동을 모델링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모는 치료자와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형 전달 인사(구조) - 당신은 누구십니까(개입) - 솜공 코코코(양육) - 솜공 옮기기(도전, 개입) - 담요 기차(양육, 개입) - 담요 김밥(양육) - 로션 활동(양육) - 손 닦아주기(양육) - 먹여주기(양육)
2	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아동이 치료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② 놀이의 즐거움을 통해 아동이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③ 모는 치료자와 아동을 모델링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모는 치료자와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형 전달 인사(구조) - 밴드 붙이기(양육) -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개입) - 코카콜라 맛있다(개입) - 엘리베이터(구조) - 돌이 살짝 손잡고(개입) - 풍선치기(도전) - 로션 활동(양육) - 손 닦아주기(양육) - 먹여주기(양육)
3	① 모와의 정서적 ·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② 모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형성한다.	인형 전달 인사(구조) - 솜공 코코코(양육) - 솜공 옮기기(양육) - 솜공 경주(도전) - 비눗방울 터뜨리기(개입) - 엘리베이터(구조) - 거울 되어보기(구조, 개입) - 흔들 담요(양육) - 담요 김밥(양육) - 로션 활동(양육) - 손 닦아주기(양육) - 먹여주기(양육)

<p>4</p> <p>①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과 신체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과 타인상을 형성한다.</p> <p>② 모와 함께하는 애착 활동을 통해 애착 욕구를 충족한다.</p>	<p>인형 전달 인사(구조) - 송공 경주(개입) - 송공 옮기기(개입) - 날 따라 해봐요(개입) - 풍선치기(도전) - 손과 발 그리기(양육) - 호일 활동(양육) - 뽕뽕이 로션 활동(양육) - 손 닦아주기(양육) - 먹여주기(양육)</p>
<p>5</p> <p>① 아동이 모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다.</p> <p>② 모와 함께하는 애착 활동을 통해 애착 욕구를 충족한다.</p>	<p>인형 전달 인사 & 악수하기(구조) - 송공 코코코(개입) - 송공 경주(개입) - 담요 김밥(양육) - 흔들 담요(양육) - 담요 기차(양육, 개입) - 작아지는 배(도전, 양육) - 등 글씨 맞추기(도전) - 날씨 안마(양육) - 손 닦아주기(양육) - 뽕뽕이 로션 활동(양육) - 먹여주기(양육)</p>
<p>6</p> <p>① 아동이 모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다.</p> <p>② 모와 함께하는 애착 활동을 통해 애착 욕구를 충족한다.</p>	<p>인형 전달 인사(구조) - 담요 김밥(양육) - 손, 발 닦아주기(양육) - 송공 경주(개입) - 로션 활동(양육)</p>
<p>7</p> <p>① 긍정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한다.</p> <p>②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건설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p>	<p>인형 전달 인사(구조) - 무슨 손가락이게(양육) - 신문지 찢기(도전) - 신문지 펀치(도전) - 신문지 뿌리기(개입) - 신문지 농구(도전) - 작아지는 배(양육, 도전) - 로션 활동(양육) - 간식 먹기(양육)</p>
<p>8</p> <p>① 양육적인 활동과 접촉을 통해 모와 아동이 안정된 애착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② 이별 감정을 다뤄 긍정적인 헤어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p>	<p>인형 전달 인사(구조) - 엘리베이터(구조) - 셋이 살짝 손잡고(개입) - 붕~깍!(개입, 양육) - 손 탐 쌀기(개입) - 뽕뽕이 로션 활동(양육) - 징검다리(양육) - 그림 그리기(개입)</p>

<표 4> 모-자녀 치료놀이 구성

1~2회기 : 치료자와 아동의 친밀감 형성

1~2회기는 치료자와 아동만 치료놀이에 참여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이를 관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치료자와 아동이 치료놀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동이 낯선 치료자와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이후 치료놀이에 즐거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셋째, 아동이 접촉의 즐거움을 통해서 치료놀이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어머니는 치료놀이를 관찰하면서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건강한 모-자녀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양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아동이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즐거운 신체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1회기는 치료자와 아동의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즐거운 인사를 한 후, ‘당신은 누구십니까’ 활동이 진행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활동은 노래에 맞게 서로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어색할 수 있는 첫 만남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숨공 코코코’는 치료자가 숨공으로 아동의 얼굴에 가볍게 접촉하는 활동이다. 아동의 눈, 코, 입, 볼, 턱 등을 숨공으로 가볍게 터치하며, 접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아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숨공 옮기기’는 손바닥에 숨공을 올려두고 입으로 숨공을 불어 상대방의 손에 올리는 활동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담요 기차’는 담요 위에 아동을 눕히고 노래에 맞게 치료자가 담요를 끄는 활동으로, 아동과 자연스럽게 눈 맞춤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담요 김밥’은 담요로 아동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꺾꺾 눌러주는 활동으로 아동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다. ‘로션 활동’, ‘손 닦아주기’, ‘떡여주기’는 프로그램 매회기에 있는 기본 활동으로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아동이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2회기에는 1회기보다 접촉하는 활동이 더 많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밴드 붙이기’는 아동의 몸을 살피주고, 상처가 있는 곳에 밴드를 붙여주는 활동으로 아동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는 노래에 맞게 치료자가 아동의 팔이나 다리에 손가락을 올리고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이다.

‘코카콜라 맛있다’는 아동과 함께 다리를 맞대고 노래를 부르며 하는 활동으로 아동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엘리베이터’는 아동과 치료자가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활동이며, ‘둘이 살짝 손잡고’는 노래에 맞게 서로 율동을 하는 활동이다.

3회기 : 치료자, 어머니와 아동 긍정적인 관계 맺기

3회기부터는 치료자,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치료놀이에 참여한다. 치료자는 어머니와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3회기에는 앞서 1, 2회기에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반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관찰하였던 익숙한 활동들을 아동과 함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 2회기 과제였던 활동들도 있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3회기는 반복되는 활동들이 많다. ‘날 따라 해봐요’ 활동은 서로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담요기차’는 담요에 아동을 눕혀 어머니와 치료자가 서로 담요를 끌어주는 활동이다. ‘흔들 담요’는 담요 끝을 각각 단단하게 잡고, 아동을 담요로 들어 올려 노래를 불러주는 활동으로, 아동이 치료자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담요 김밥’은 아동에게 담요를 덮어주어 포근함과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4회기 : 긍정적인 자기상 형성

4회기는 신체적 접촉과 신체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4회기의 활동들은 주로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손과 발 그리기’를 비롯하여 ‘호일 활동’을 통해서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손과 발 그리기’는 자신의 손과 발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스스로 꾸며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또, 어머니의 손과 발을 함께 그려봄으로써 어머니의 신체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날 따라해 봐요’는 서로의 행동을 따라 하며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5~6회기 : 어머니와 함께하는 즐거움 경험

5~6회기는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애착 활동을 통해 애착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5~6회기에는 양육적인 활동과 개입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 회기에 했던 ‘숨공 코코코’, ‘숨공 경주’ ‘담요 기차’와 같은 익숙한 활동들로 아동과 어머니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담요 김밥’, ‘흔들담요’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신체 접촉으로 즐거운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날씨 안마’는 날씨 상황에 맞게 서로를 안마해주는 활동으로 접촉과 더불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작아지는 배’는 점점 작아지는 신문지에 다 함께 올라가는 활동이며, ‘등 글씨 맞추기’ 활동은 서로의 등에 글씨를 써서 맞추는 활동으로 접촉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7회기 : 긍정적인 관계에서 자기표현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수용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어머니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한국어가 힘들어 자녀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제시하기보다는 자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다 하는 편이라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에서 아동이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에서도 어머니의 말에 따라 활동을 정리하는 것과 아동의 말에 어머니가 응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에게 수용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수용 받아본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7회기에 ‘어느 손이게’는 치료자와 어머니가 아동의 등이나 목 뒤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후, 아동에게 어느 손가락인지 물어보는 활동으로 아동이 접촉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신문지 찢기’는 신문지를 찢어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신문지 뿌리기’는 찢어진 신문지를 아동에게 뿌리고, 덮어주는 활동이며, 하나, 둘, 셋에 맞춰 아동이 덮어진 신문지를 뚫고 나오는 활동

이다. 양육 경험과 함께 감정 해소를 느낄 수 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신문지 농구’는 찢어진 신문지를 뭉쳐 공을 만들어 치료자와 어머니가 팔로 만든 골대에 넣어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작아지는 배’는 점점 작아지는 신문지에 어머니와 아동, 치료자가 함께 올라가는 활동으로, 아동이 양육적인 활동을 통해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뽁뽁이 로션 활동’은 뽁뽁이 위에 로션을 뿌려 손과 발로 터트리면서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8회기 :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 재확인

8회기는 양육적인 활동과 접촉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별 감정을 다뤄 긍정적인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이 살짝 손잡고’는 2회기에 아동과 치료자가 함께 했던 활동으로, 어머니와 함께해봄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붕~깅!’ 활동은 ‘붕’에 맞춰 움직이며 ‘깅!’에 맞춰 멈추는 활동이다. 이때, ‘깅!’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을 꼭 안아주어 아동과 어머니가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양배추를 심자’를 통해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한다. ‘손과 발 닦아주기’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손과 발을 닦아주며, 아동이 자신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양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징검다리’에서는 쿠션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아동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활동으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아동과 어머니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종결과 치료자와의 이별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 긍정적인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B. 과정 및 분석

전체 치료과정의 분석은 초기(1-2회기), 중기(3-5회기), 말기(6-8회기)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와 아동, 치료자가 함께 놀이를 할 때 보였던 양상들과 반응 및 변화들을 기술하였다.

1. 초기(1-2회기)

1)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자와 아동이 함께 하였고, 어머니는 옆에서 치료자와 아동을 관찰하였다. 치료자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놀이가 재미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며, 시간과 공간,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되, 치료자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흥분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어머니가 치료자의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치료자는 아동의 말과 행동, 감정에 대한 언어적인 반응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신체적인 접촉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1) 1회기

1회기에서 아동은 시작 시에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 옆에 붙어있었다. 치료자가 ‘인형 전달 인사’를 하기 위해 생쥐 인형을 꺼내 들자 인형에 관심을 보이며 생쥐가 어떻게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생쥐흉내를 내면서 “생쥐는 이렇게 다니는데 애(인형)는 팔이 길다”라고 말하였고, 치료자가 머리에 생쥐 인형 올리자 “선생님 머리 빨랐다”고 하였다. 아동은 치료자에게 다가왔고, 치료자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숨공 코코코’ 활동에서 치료자가 숨공을 아동의 코에 가져대자 웃으면서 간지러워하였다. 아동이 치료자와 활동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몇몇 활동에는 어머니도 함께 참여했다. ‘숨공 옮기기’ 활동에서 치료자가 분 숨이 아동의 손에서 떨어지자 “선생님은 노골”이라고 말하며 즐거워하였다. 어머니는 활동 중간에 아동에게 “선생님한테 반말하

지 마!”라고 말하였다. 아동은 치료놀이 활동 중간에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이 신기했는지 카메라에 가서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구르기를 하며 치료자에게 떨어졌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반복하였다. 아동은 치료자와 똑같은 로션이 있다며 로션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다. ‘로션 활동’에서 로션으로 아동의 손에 얼굴을 그려주자 아동은 왕관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데렐라는 어려서’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치료자의 손을 잡고 놀이를 시도하였으며, ‘손 닦아주기’에서 손을 닦아주자 물티슈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손 닦아주기’ 활동 마지막에는 아동이 치료자에게 “물티슈 선물”이라며 물티슈를 건네주었다. ‘먹여주기’ 활동에서 처음 치료자가 아동의 입에 과자를 넣어줄 때는 부끄러워하였는데, 그다음에는 곧바로 과자를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였다.

(2) 2회기

2회기 시작 전날에는 어머니한테 아동이 선생님 언제 오느냐고 했다고 연락이 왔다. 아동은 치료자가 가지고 온 준비물을 보고 “생쥐 또 왔다! 로션 있는데!”라고 하였고, ‘인형 전달 인사’를 할 때, 먼저 손을 뻗어서 치료자에게 내밀었다. 인형 전달 인사를 하고 뒤로 도망갔으며, 캐리가 그려진 밴드를 보더니 자신은 캐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2회기에서도 몇몇 활동은 어머니도 함께 참여했다. ‘밴드 붙이기 활동’과 ‘거미타기’ 활동을 어머니와 함께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색해하기도 하였다. ‘코카콜라 맛있다’ 활동을 하자 아동은 우정테스트와 목찌빠를 하자고 치료자의 손을 잡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번 주와 달리 치료자가 준비해온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풍선치기’ 활동에서 아동은 손을 잡고 풍선을 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지 자꾸만 손을 놓고 풍선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로션 활동’에서 아동은 치료자의 손에 로션으로 그림을 그려주었다. ‘먹여주기’ 활동 중 아동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사탕이 잘 뜯어지지 않아서 뜯어왔다고 했다.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치료자와 아동은 활동 중에는 방에 들어가거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2) 모 상담 회기

초기 단계에서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명확한 구조화가 필요했다. 어머니가 구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 활동, 역할,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한 구조화를 명확히 해야 했다. 또한, 어머니에게 모-자녀 치료놀이 활동에 대한 설명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직접 과제 활동을 실시하여 어머니가 양육과 아동의 감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 1회기

1회기 관찰에 대해 어머니는 “좋아요. 웃음도 나오고 재미있어요.”라고 하였다.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아동이 낯을 많이 가린다고 보고했지만, 활발하고 활동도 즐겁게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치료자가 본 아동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었다. 과제인 로션 활동 방법을 알려주며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직접 로션 활동을 실시하였다. 어머니는 조금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제 활동에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어렵다면, 샤워하고 로션을 바를 때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2) 2회기

어머니에게 과제 수행 여부에 관해 물어보니 과제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머니에게 과제를 할 것을 부탁했다. 어머니랑 아동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과제의 이유를 알려주자 어머니는 노래를 못한다고 말하였다. 다음 회기부터는 어머니와 아동, 치료자가 함께 치료놀이에 참여함을 알려주었고, 치료자는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즐거움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3) 분석

아동은 초반에는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자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을 보였다. 치료자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치료자를 자신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왕관을 그려달라고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치료자와 아동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은 치료자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동은 1회기에는 신체접촉에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했지만, 2회기에서는 치료자에게 거리를 두면서도 먼저 손을 잡아 활동하고, 치료자의 손에 그림을 그려주는 등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이 조금씩 치료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은 어머니에게 접촉하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1, 2회기는 아동과 치료자가 함께하고, 어머니는 관찰하는 회기였지만, 어머니는 활동 중간에 아동과 치료자에게 이야기하며 웃는 등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치료자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으며, 어머니도 아동과 함께 놀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중기(3-6회기)

1)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

중기 단계에서 치료자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양육적인 활동을 어색해하는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아동에게 부드럽게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머니도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3회기에는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말과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하였고, 4회기와 5회기에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예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언어적 개입을 사용하였다.

(1) 3회기

3회기 초반에는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어색해 보였다.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치료자와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숨공 경주’에서 어머니와 치료자가 꼴등을 1번씩 했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

작!”하면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규칙을 알려주었다. ‘숨공 옮기기’ 활동에서 아들은 숨공이 손에서 떨어지자 즐거워하였으며, 숨공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받는 모습을 보였다. ‘비눗방울 터뜨리기’ 활동에서 아들은 ‘하나둘 셋!’ 하면 터뜨려야 하는데 “하나, 둘 밖에 안 했는데 터뜨렸다”고 웃으며, 구조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울 되어보기’ 활동에서 아들은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활동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흔들 담요’ 활동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부르자, 아들은 영어노래를 할 줄 안다며 자신 있게 말하며 노래를 불렀다. ‘담요 김밥’ 활동에서 어머니는 아들과의 접촉을 어색해하며 주저하였다. ‘로션 활동’에서 아들의 손에 어머니와 치료자가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에 맞춰 손등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들은 부끄러운지 로션을 이마에 바르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마지막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래를 부르며 과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4회기

4회기 ‘인형 전달 인사’에서 아동이 어머니 손을 잡지 않자, 어머니가 “손잡아 줘”라고 말하였다. 아들은 이에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눈을 맞추지는 않았다. ‘숨공 경주’ 활동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즐거워하였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1등 했어?”라고 웃으며 아들의 즐거움을 함께하였다. ‘날 따라 해봐요’ 활동에서 아들은 부끄러워했던 저번 회기와는 달리 즐겁게 참여하였다. ‘풍선치기’에서 아들은 먼저 치료자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풍선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손과 발 그리기’ 활동에서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의 손과 발을 그려주었는데, 아들은 간지럽다고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아들은 손가락 하나하나에 커다란 별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뽁뽁이 로션 활동’에서 아동이 발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하지 않았다. 치료자가 어머니도 같이 발로 하자고 제안하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손으로만 터뜨렸다. 아들은 호일을 가져와서 로션을 뿌리고 뽁뽁이에 붙이고, 뽁뽁이를 돌돌 말아서 세계 손으로 내려쳤다. 어머니랑 치료자가 발을 닦아주자 아들은 자신의 손을 닦았다. ‘떡여주기’ 활동 마무리 중에 아들은 풍선을 어머니의 배에 넣고 두드리며 “엄마 배 똥똥해졌다!”하고 즐거워하였다.

(3) 5회기

‘인형 전달 인사’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이랑 인사해볼까아?”하면서 치료자의 부드러운 말투를 따라 했다. ‘담요 김밥’ 활동에서 어머니는 전에 비해 아동과의 접촉이 자연스러워졌고,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OO아 엄마 김밥 잘 만들었지?”라고 아동에게 웃으며 물어보았다. ‘담요 기차’ 활동에서 아동은 즐거운지 웃으면서 “한 번만 더해줘”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쁘게 말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작아지는 배’ 활동에서 어머니는 아동을 끌어안았는데 강압적이고 서툰 모습이었다. ‘등 글씨 전달하기’ 활동에서 치료자가 하는 설명을 어머니가 아동에게 다시 말해주었고, 아동이 조금 어려워하자 “느낌을 봐. 느낌을.”이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등에 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날씨 안마’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안마에 “아고 시원하다. 시원해.”라며 좋아하였고, 아동은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에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안마를 해주며, 간지럼을 태우는 장난으로 이어졌고, 어머니가 아동에게 뽀뽀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뽀뽀이 로션 활동’에서 아동은 로션에 미끄러지는 걸 좋아했고, 로션을 더 많이 뿌려달라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아동이 다칠까 봐 걱정하였다.

(4) 6회기

치료놀이를 시작하기 전, 아동은 어머니에게 안겨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전보다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아동과 더 잘 놀게 됐다고, 편안해졌다고 웃으며 말했다. 치료자는 남은 회기를 손가락과 함께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동에게 노래 불러보자고 제안을 하며 놀이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인형전달 인사’에서 아동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 치료자가 손가락을 아동의 목에 가져다 대고 “무슨 손이게?”라고 하며,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기대거나 엎드리고, 눕는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동의 등에 뽀뽀를 해주었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다가가서 ‘인형 전달 인사’를 하였고, 아동이 자꾸만 고개를 숙이자 눈을 맞추며 “선생님이 보고

싶은데~”라고 하였다. 아들은 잠시 눈을 맞추고 치료자와 인사를 하였고, 어머니와는 눈을 감고 인사를 하였다. 자꾸만 어머니에게 기대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동에게 “왜 그래요~ 아가씨 왜 그래요~”라면서 장난을 쳤다. 자꾸만 늙는 아동에게 치료자는 ‘담요 김밥’을 해주겠다고 담요를 펼치자 아동이 웃으면서 담요에 누웠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담요를 뒤집어썼고, 어머니는 그런 아동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아들은 어머니의 장난에 즐거워하였다. 치료자가 아동을 꼭꼭 눌러주자 웃으며 기어 다녔다. 치료자는 담요로 아동과 잡기 놀이를 이어갔고, 즐거워하는 아동을 보던 어머니는 “엄마는 못 안아. 이제 무거워서 못 안아.”라고 말하였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가서 안겼고, 어머니와 뽀뽀를 하였다. ‘손 닦아주기’에서 아동의 손과 발을 어머니와 치료자가 닦아주었고, 치료자와 아동이 어머니의 손을 닦아주었다. ‘숨공 경주’에서 아들은 숨공을 던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주를 하였고, 손으로 하는 숨공 축구를 하였다. 아동이 방에 들어가더니 자신의 사진첩을 가지고 나왔다. 아동과 함께 사진을 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 로션 놀이를 하였다. 달팽이 집을 짓고, 미끌미끌 쪽~을 하였는데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엮어지고, 어머니가 아동을 끌어안았다.

2) 모 상담 회기

중기단계에서 치료자는 어머니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격려와 지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 어머니가 함께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은 좋아한다는 것과 심리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도록 했다.

(1) 3회기

어머니에게 프로그램 활동 중간에 과제 활동을 실시한 것을 이야기하자, “엄마가 노래 몰라서 내가 가르쳐줬대요.”라고 아동이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과제들도 냉장고에 붙여놨다고 아동이 알려주었다. 어머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오늘 회기에 대해 물으니 어머니는 재미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에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즐겁게 참여해주었다고 말하며 격려해주었다. 어머니는 저번보다는 집에서 아동과 함께 노는 시간이 늘

어났다고 하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번에 비교해서는 나아졌다고 하였다.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는 한글 공부를 하고 5시 넘어서 집에 온다며 어머니는 집에 오면 식사준비를 하고, 한국어 숙제를 해야 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하였다.

(2) 4회기

어머니에게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놀이를 하는 이유와 아동에게 긍정적인 신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과제 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치료자는 아동이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 놀이와 노래를 함께 하는 것이 상호작용 증진과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모-자녀 치료놀이에 활용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어머니는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말하며, 친구들도 많지 않고, 교육도 잘 해주지 않아서 옳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옆집 아이들이랑 놀아 심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모-자녀 치료놀이를 하기 전보다 어머니랑 더 놀려고 한다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에게 아동을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격려했다. 어머니는 아동이랑 조금만 놀아도 큰 소리가 난다며, 아동이 자신을 따라 하지 않아 화를 내게 된다고 하였다.

(3) 5회기

5회기 전날 어머니와 상담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당일 취소를 하였다. 과제 활동을 하지 않고, 치료자의 이야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자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회기 시작 전에 집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4) 6회기

치료놀이 시작 전에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는 아동의 어릴 때 사진, 자신의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베트남

남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이 넘어졌다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치료자에게 하였다. 회기가 끝난 후에는 모-자녀 치료놀이를 하고 나서 아이가 밝아 보인다고 하였고, 자신 또한 좋아진 것 같으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진 거 같아요. 감사해요.”라고 하였다.

3) 분석

중기 단계의 회기 내내 어머니와 아동 모두 웃으면서 즐겁게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어색해 보였는데 점차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였다. 회기 시작 시 인사 활동에서 아동이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거나 눈을 보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4회기 활동 마지막에는 어머니 옷에 풍선을 넣는 등 장난을 치는 친밀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동과 어머니의 신체접촉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6회기에는 신체적인 접촉 증가와 정서적 친밀감이 많이 나타났다. 모-자녀 치료놀이에서는 애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촉 놀이를 통해 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실시했을 때는 어머니와 아동은 함께하는 놀이 경험이 부족하여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 단계에서 아동이 어머니와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적었다.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기보다는 치료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접촉하는 횟수가 많았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아동은 점차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 신체접촉을 하는 횟수도 증가하였다.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무릎에 앉거나 놀이 중에 포옹하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초기보다 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 어머니 또한 아동을 쓰다듬어 주고, 토닥여주며, 뽀뽀를 하는 등 아동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아동과의 관계가 편안해진 거 같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아동이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아동은 초기 단계에는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기 단계에서는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머쓱하게 웃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변화도 나타났다. 어머니는 활동 내에서 과제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아동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치료자의 말투를 따라 하면서 아동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1회기에서는 치료자에게 말을 하는 아동에게 “반말하지 마!”라고 조금 엄하게 이야기했다면, 5회기에서는 “말 예쁘게 해야지.”라며 아동을 대하는 말투도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행동과 말에 적절히 반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초반에는 한국어 공부 등과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6회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치료자에게 신뢰를 느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후기(7-8회기)

1) 모-자녀 치료놀이 회기

후기단계에서 아동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을 표현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자는 양육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계획하여, 아동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넣어 어머니와 즐거운 경험을 바탕으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 7회기

치료자가 아동에게 다가가자 아동이 뒤로 조금 물러나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다. ‘인형 전달 인사’ 후, 아동이 다른 곳으로 가자 어머니가 생쥐인형을 가지고 “빨리 와~ OO 친구야~”라며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다가갔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신문지 찢기’ 활동에서 ‘쭈’ 하면 찢고, ‘땡’ 하면 멈추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잘 이어가다가 중간부터는 아동과 어머니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찢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지 펀치’ 활동에서 어머니는 “우와 힘세다. 잘한다.”라고 말하며 아동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

하였다. 아동은 주먹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내려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지 편치를 하였다. 찢어진 신문지 조각으로 ‘신문지 뿌리기’ 활동에서 아동은 어머니에게 신문지를 뿌리며 “비가 옵니다.”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지 공을 만들고 치료자와 어머니가 팔로 농구 골대를 만들어 ‘신문지 농구’를 하였다. 아동은 즐거워하며 골대를 더 위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작아지는 배’ 활동에서 어머니는 아동을 안았고, 아동은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저번 회기에 비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모습이였다. 아동은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비행기와 배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부탁으로 종이배를 만들어 주었고, 아동은 어머니 옆에서 종이를 같이 눌러주며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종이배를 치료자와 어머니 머리에 씌워주며 즐거워하였다. ‘간식 먹기’ 활동에서 치료자가 빼빼로를 꺼내자 어머니와 아동은 빼빼로 하나를 물고 뽀뽀를 하며 서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자가 마지막 활동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묻자, 아동은 ‘그림’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에게도 묻자, 아동이 좋아하는 건 다 좋다고 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컷속말로 자신과 똑같이 대답하라고 하며 웃었다.

(2) 8회기

‘인형 전달 인사’를 하였고, 아동은 어머니에게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말하였다. 아동이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고, 아동은 도와달라며 어머니를 불렀다. ‘붕~깅!’ 활동에서 아동은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료자는 ‘깅!’할 때, 어머니가 아동을 안아주라고 하였다. 아동은 먼저 어머니에게 가서 안기는 모습을 보였고, 매달리기도 하였다. ‘뽁뽁이 로션 활동’에서 아동이 뽁뽁이 위에 올라가서 발로 쿵쿵거리자, 전과 달리 어머니도 함께 발로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뽁뽁이 밑으로 들어갔고, 뽁뽁이에 닿지 않고 밑으로 넘어가는 놀이를 하자며 치료자와 어머니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징검다리’ 활동에서 어머니는 아동이 너무 세게 안기자 다친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동은 그 뒤로 조심히 안겼고, 어머니는 그런 아동을 안아주었다. 아동과 어머니와 치료자는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동은 부끄러워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어머니에게 장난을 걸었다.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그동안 즐거

왔다.”고 말하였다. 아동이 하고 싶어 했던 그림 그리기를 함께 하며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2) 모 상담 회기

후기 단계에서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양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 상담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하였고, 적절한 감정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모-자녀 치료놀이 활동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했다. 어머니가 과제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과제를 제시하는 대신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아동의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치료자가 어머니에게 양육적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 7회기

어머니는 이번 주에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하였고, 8월에도 시험이 있다고 걱정하였다. 국적을 따기 위해 한국어 프로그램 단계에 올라가는 시험이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아이에게는 한글이 많이 부족하다며,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말하면서, 저번 어린이집은 교육을 잘 안 시켜줬는데 현재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을 잘 시켜주어서 좋다고 하였다. 아동도 잘 적응하고, 즐거워한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2) 8회기

어머니는 치료놀이 활동이 끝나자마자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국어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단어 뜻과 정답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아동을 위해 국적을 따고 싶다고 하였고, 국적을 따기 위해 시험을 대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후 검사와 사후 면담 일정에 대해 의논했고,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날씨도 더운데 먼 곳까지 와서 고생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3) 분석

아동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방에 들

어가서 사탕을 가위로 자르고 오는 등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은 어머니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요구사항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어머니를 신뢰하며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에게 인형을 사용하여 다가가는 모습이나 노래를 부르자고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자, 아동과 고개를 나란히 하고, 아동이 어머니 눈을 쳐다보게끔 기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며,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아동을 위해 신문지로 배를 접을 때, 아동은 어머니를 도와 신문을 눌러주는 모습 등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뽀뽀 로션 활동에서 아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로 터뜨리는 것을 거부했는데, 8회기에서는 함께 발로 터뜨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V. 연구결과

A. 상호작용의 변화

1. MIM 사후검사

8회기의 모-자녀 치료놀이 이후 실시된 사후 MIM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화 차원에서 어머니는 활동을 순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전과 마찬가지로 활동이 끝날 때마다 주변을 정리하여 아동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사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도 나타났다.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사전과 달리 활동에 대해서 아동과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직되어 있었던 모습과 달리 먼저 적극적으로 아동을 이끌었으며, 보다 즐거운 방식으로 놀이를 지속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과제에만 집중하던 사전과 달리 아동이 먼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 뒤에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먼저 활동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동도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는 모-자녀 치료놀이 활동에서 익혔던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동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개입 차원에서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활동을 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동이 블록으로 만드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함께 하였고, 베트남 노래를 부르며 박수도 치고, 손을 맞잡으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지속시간 또한 길게 이어졌다.

셋째, 도전 차원에서 어머니는 아동이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아동에게 적절

한 수준의 도전 활동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활동 중간에 어머니는 아동이 충분한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여주었고, 아동은 즐겁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양육 차원에서 어머니는 부드러운 말투로 아동을 이끌었으며, 어색해했던 사전과 달리 아동과 눈 맞춤을 하고,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증가하였다. 로션 활동에서 아동의 손에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아동 또한 어머니의 손에 하트를 그려주었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사전에 비해 편안해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하는 말에 반응이 많지 않았던 사전과 달리 아동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에너지 수준이 낮고,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전검사에 비해 어머니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과제 활동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며,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중간에 격려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드러운 태도와 신체접촉이 증가하였다.

2. 가족 협동화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 색을 고를 때, 아동이 먼저 색깔을 고를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색을 고르는 동안 “무슨 색을 좋아하나?”라고 말을 하였고, 아동이 분홍색을 고르자 “핑크색 좋아해요?”라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물음에 아동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눈 맞춤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크레파스를 고르고, 아동에 무슨 색이냐고 물었고, 아동은 “초록색. 아니 연두색.”이라고 대답했다. 아동이 노란색 크레파스도 고르자 어머니가 “하나만 골라. 욕심쟁이.”라며 웃었다. 아동은 노란색과 분홍색 중에 고민하다가 분홍색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그리기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OO이 먼저 할까?”라고 말하였고, 아동이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OO이 먼저 해.”라고 말하였다. 아동(핑크) → 어머니(연두) 순서로 가족 협동화 그리기가 진행되었다.

아동이 그림을 그리자 어머니가 “해를 그리는구나.”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순

서에서는 “엄마가 그럴까. 엄마가 꽃 그럴까.”라고 아동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은 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은 그리기 도중 자신의 순서에 어떤 것을 그릴지 몰라 멈춰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어머니는 “나비 그려”라고 속삭였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순서와 시간을 잘 지켰지만,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물고기와 오리를 그렸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동은 나비, 토끼, 해를 그렸다고 하였다. 아동과 어머니는 작품의 제목을 짓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각자 자신이 그린 그림에 이름을 붙였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제목은 정하지 못하였다.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연두색을 고른 후, 아동에게 무슨 색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순서를 정하는 과정은 사전의 모습과는 달리 ‘가위바위보’를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기자, 다시 가위 바위 보를 하자고 하였고, 아동이 이기자 먼저 하게 했다. 그리기 순서는 아동(갈색) → 어머니(연두)로 진행되었다.

아동이 먼저 그림을 그리자 어머니는 “그게 뭐가?”라며 아동의 그림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탁상에 그려진 그림을 따라 그렸고, 어머니는 스펀지밥을 그렸다. 아동은 어머니의 그림에 다이아몬드 사람이냐며 웃어보았고, 어머니는 스펀지밥이라고 말하였다. 아동은 스펀지밥이 아니라며 웃었고, 자신도 스펀지밥을 그릴 수 있다며 어머니를 따라 스펀지밥을 그렸다. 어머니는 아동이 그린 키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렸다. 아동은 어머니의 그림에 똥이라며 똥이 노래를 불렀다.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똥이를 그렸다. 아동은 “키티하고 스펀지밥하고 똥이가 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즐거워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은 사전에 비해 순서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사전에 비해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 사전과 달리 서로 웃으면서 그림을 그렸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제목을 물어보았고, 아동은 어머니에게 귓속말로 제목을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바람 소리만 들린다며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키티와 스펀지밥 똥이 놀이’라고 제목을 말하였고, 어머니는 아동이 말하는 글을 적으려다가 어렵다며 다 적지 못하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 어머니는 생선, 물고기, 오리 등을 그렸고, 아들은 사람, 나비, 산, 토끼 등을 그렸다. 완성된 그림이 ‘자연, 사람, 동물’이라는 통일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였고, 완성된 그림에서 각각의 색은 서로 분리된 모습이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어머니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였다. 그와 달리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의 연령에 맞춰 그림을 그렸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먼저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이의 그림 크기에 맞게 어머니의 그림 크기도 더 커졌으며, 사전과 달리 그림을 그린 공간도 서로 비슷하였다. 또, 어머니는 아이의 부족한 그림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과 달리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개입했다는 점이며, 이에 어머니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사후
	
미제	Kitty와 스펀지밥 똥이 놀이

<그림 2> 가족 협동화 사전 사후

B. 양육행동과 가정에서의 변화

1. 양육행동의 변화

모-자녀 치료놀이가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Crase 등(1978)의 아이오아 부모 양육 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6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영역인 합리적 지도, 제한성, 애정성, 반응성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합리적인 지도가 7점이 상승하였다. 합리적인 지도는 자녀가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수용되지 못하는 행동과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이유에 대해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는 양육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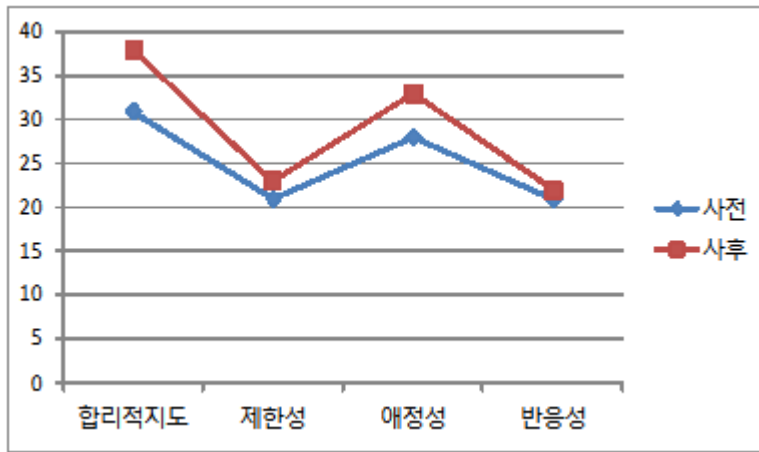
제한성은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2점이 상승하였다. 제한성은 제한을 정해 두고, 이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양육 행동으로, 구조화가 부족했던 어머니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애정성은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며 자녀의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는 행동과 신체적인 애정표현 및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 행동이다. 어머니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5점 이상 상승하였고, 반응성은 자녀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양육행동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1점이 상승하였다.

사전에 어머니는 구조화가 부족한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아동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다소 어색하였다. 하지만 모-자녀 치료놀이 실시 이후에는 치료놀이의 기본 원리인 접촉을 통해 아동과의 신체적인 애정표현 및 친밀성 표현이 증가하였고, 아동과 함께하는 놀이와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애정성과 합리적인 지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	사후	변화
합리적인 지도	31	38	△7
제한성	21	23	△2
애정성	28	33	△5
반응성	21	22	△1

<표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자녀 치료놀이 실시 전과 후의 양육행동 변화



<그림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화

2. 가정에서의 변화

모-자녀 치료놀이가 끝난 후, 어머니와 따로 만나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후 면담을 한 목적은 첫째,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한 어머니와 아동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한 가정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을 듣고 싶었으며, 보완할 부분에 대해 알고 싶었다. 셋째, 앞으로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해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 연구자는 어머니와의 사후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표현이 증가하였다. 어머니는 모-자녀 치료놀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와 소통이 된다고 밝게 웃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TV만 보던 예전에 비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함께 책을 읽자고 하는 등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뭐했는지 말도 잘하고. 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어린이집 갔다 오면 TV를 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먼저 책 읽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책 읽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사후면담 중)

둘째, 양육자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어머니는 사전면담에서 아이가 TV를 보지 못하게 제지하는 상황 등에서 어머니에게 “미워. 안 놀아. 안 살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종종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후면담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줄어들고, “집에서 엄마가 1등이야. 엄마 제일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엄마랑 안 살아.” 라고 말해요.

(사전면담 중)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1등” 이라고 하고. “엄마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해요.

(사후면담 중)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 어머니는 사전면담에서 아동이 말을 한번에 듣지 않아서 화를 내는 일이 잦다고 하였다.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는 중에도 아동이 어머니와 조금씩 놀려고 하지만, 말을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해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후면담에서 아동과 의사소통이 되었다며, 예전에는 화를

내야 하는 일에도 아동은 어머니를 잘 따라주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어머니는 아동과의 관계를 좋다고 보고하였지만, “제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안 들어요.” 라며, 아동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사전면담 중)

프로그램 하기 전보다 아이가 조금씩 어머니랑 놀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싸우기도 해요. 안 따라 하니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며 속상해하였다.

(4회기, 모 상담 중)

프로그램 하고 나니까 아이와 소통이 돼요. 의사소통. 아이와 소통이 되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뭐 먹었는지도 이야기해요. 지금은 말도 잘 들어요. 9시에 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파리채 들고 화를 내야 했는데, 이제는 “엄마 딱 한 번만 보고 잘게” 하고 정말 딱 그거만 보고 자요. 지금은 부드럽게 말도 잘 들어요.

(사후면담 중)

넷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에 다소 어색해보였고,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과 집에 있어도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경험하고, 아이와 함께 놀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모-자녀 치료놀이 실시 후에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니,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노는 게 즐거워요. 아이랑 같이 놀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후면담 중)

C.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상호작용 변화과정 및 변화요인

1.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나타난 변화과정

1) 어색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는 어색하며 경직되게 느껴진다. 연구대상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가 그러했다. 어머니와 아동은 서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는 모습이었다. 서로에게 친근한 놀이를 해보라고 하였을 때에도, 어머니와 아동은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놀이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아동과 각자 인형을 나눠 가졌고,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아동이 인형을 가지고 놀자 어머니는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아동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중략> 아동과 어머니는 서로 말이 없는 채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다음 활동으로 급하게 넘어갔다.

(사전 MIM 인형 놀이)

서로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서로의 욕구를 알아주는 것도 서툴기만 하다. 어머니는 아동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아동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지만, 아동은 어머니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동과 어머니는 종이 한 장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어머니는 “따라 그려.” 라고 말했고, 아동은 탁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나는 이것을 그려래.” 라고 말하며 종이를 뒤집자 어머니는 “아니야. 따라 그려.” 라고 말하며 다시 종이를 뒤집었다. <중략> 어머니가 꽃을 그리자고 말하며 그림을 그리자 아동은 다른 꽃을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어머니는 “따라 그리세요.” 라고 말하였다. <중략> 아동은 “나 고양이 그릴 거야.”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생선을 그리며, “따라 해야지.” 라고 말하였다.

(사전 MIM 그림 그리기)

아동은 자신이 그릴 크레파스를 골랐다. 분홍색을 고르자 어머니는 아동에게 “핑크색 좋아해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아동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사전 가족 협동화)

어머니는 아동과 왜 함께 놀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워 보였다. 어머니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아동과 함께 집에서 놀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동은 그런 어머니에게 놀아달라고 떼를 쓰지 않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아동은 방안에서 혼자 TV를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서로는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기만 느껴진다. 어머니는 아동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였다.

치료자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모델링이 되어주어야 했다. 함께 하는 것,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어머니에게 치료자는 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고, 아동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가 스스로 아동은 혼자서 TV를 보는 게 아닌 함께 놀이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직접 활동을 실시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기분과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놀이 방법에 대해서 코칭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거부 : “엄마는 그거 싫어해요.”

치료놀이를 통해 치료자와 신뢰감이 형성되면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아동은 치료자와 함께하는 놀이에 웃으며 참여하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었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등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거부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접촉을 어색해하였으며, 어머니보다 치료자와 더 많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자가 밴드를 꺼내자 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리가 그려져 있다며 즐거

워하였다. 치료자가 아동에게 밴드를 붙여주었고, 아동에게 밴드를 주어 어머니에게 붙여보자고 하였다. 아동은 “엄마는 캐리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치료자는 “OO이가 좋아하니깐 엄마도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자 아동은 밴드를 받고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밴드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팔을 내밀며, “붙여줘.” 라고 하였고, 아동은 어머니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듯이 밴드를 어머니의 팔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2회기, 밴드 붙여주기 중)

치료자는 어머니와의 접촉을 어려워하는 아동이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양육적인 활동들을 많이 시도해야 했다. 치료자가 먼저 아동에게 양육적인 활동을 시도한 뒤에 그다음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아동이 어머니와의 접촉이 익숙해지면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먼저 양육적인 활동을 시도하여 어머니가 아동에게 적용해보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활동 중간에 아동에게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아동의 즐거움을 어머니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김밥 말이’ 활동에서 즐거워하는 아동에게 “엄마가 OO이 김밥 말아주네. 그래서 OO이가 더 좋은가 봐.”라고 말하며 어머니 또한 즐거운 경험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회기가 끝나고 아동이 치료자와 함께 하고 싶어 만든 놀이에 어머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즐거운 경험을 어머니와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3) 노력 :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치료자와 아동과의 놀이를 모델링 한 어머니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내에서 아동에게 먼저 접촉을 하고, 함께했던 활동을 시도하며 아동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저번 회기의 과제를 아동에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의 발에서부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래를 부르며 활동을 하였고, 아동은 웃으면서 “무릎!” 하고 외쳤다. 다시 무릎에서부터 “거미가 줄을 타고 올

라합니다.” 하자 아동은 “배꼽!” 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3회기, 먹여주기 활동 전)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회기 중간에 과제 활동을 실시한 것에 대해 격려했다. 아동은 옆에서 “엄마가 노래 몰라서 내가 가르쳐줬대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어머니는 씩스러운 듯이 웃었고, 아동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아동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엄마가 이거 붙였어요.” 라고 말하였다. 치료자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주었던 과제 카드가 냉장고에 붙여져 있었다.

(3회기 면담 중)

아동은 어머니의 노력에 즐겁게 웃었고, 자신이 어머니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가 노력하는 모습은 아동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였고, 활동에 더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저항 : “알아요. 아는데 힘들어요.”

어머니는 치료자와 치료놀이에 대해 신뢰해 가는 과정과 아동과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방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거리를 두고, 시험(test)을 하기도 한다. 치료자를 신뢰하기 이전에 두려운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변화되어 간다.

어머니와 따로 만나 회기 영상을 보며 어머니가 어려워하는 양육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담을 연속해서 취소했고, 회기 전날 상담이 있었음에도 당일 에 취소를 했다. 또한, 과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치료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치료자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5회기, 모 상담)

치료자는 어머니의 저항에 인내심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저항적인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졌다. 치료자는 자신의 힘든 마

음을 깨달아야 했다. 치료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내담자로 보지 않고,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꾸만 상담을 취소하고, 과제를 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에 치료자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답답함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치료자는 어머니 또한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내담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치료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자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졌다.

5) 신뢰 :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치료자는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정리한 후에 저항적인 어머니를 위해 부드럽고 진솔하게 다가가야 했다. 어머니는 치료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치료자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상담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어머니의 저항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고, 어머니가 편안한 장소인 가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방문하여 어머니와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는 그런 치료자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었다. 어머니는 점차 자신의 마음을 열어갔고, 스스로 주저 없이 치료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료자는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기 영상과 상담 내용을 옆으로 미뤄두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 또한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치료자가 어머니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일까.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는 예전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아동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웃었다. <중략>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고 싶어요. 진짜.” 라고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과 매일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한다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였다. <중략>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너무 고생한다고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6회기 회기 시작 전 면담 중)

어머니가 치료자를 신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낯선 한국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며, 어머니는 그 마음을 치료자에게 허락하였다.

6) 수용 : “예전보다 더 편안해졌어요.”

어머니는 치료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난 후, 표정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소 투박하고, 통명스럽게 느껴졌던 어머니의 말투는 치료자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변화하였다. 또한, 아동과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즐거움을 경험한 후에 점차 어색한 말투와 행동이 줄어들었고, 미소와 웃음이 증가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들고 있는 과자를 뜯어주었고, 아동은 어머니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어머니는 아동의 등과 머리에 뽀뽀하며 웃었다. <중략> 어머니에게 아동과의 관계의 변화가 긍정적인지 물었더니 “그렇다”며, “잘 놀게 됐어요. 편안해진 거 같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6회기 시작 전)

어머니는 아동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땀 좀 봐. 땀.” 이라고 말했고, 아동은 어머니를 보며 웃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쭈-욱”을 외쳤고, 아동은 어머니에게 기대었다. <중략> 어머니는 아동과 같이 엮어지면서 아동을 안고 토닥여주었다.

(6회기, 로션 활동 중)

어머니는 아동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과 차분하고 안정된 말투로 아동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아동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은 어머니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심리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현정, 2006). 어머니와 아동은 안정된 관계 속에서 눈 맞춤하는 횟수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어머니는 관계가 초기보다 편안해졌다고 말하였고,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더욱 편안함이 느껴졌다.

어머니와의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신체접촉을 어색해하는 모습이 줄어들었고,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놀이 활동과 대화 중에도 아동과 어머니와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치료자는 담요를 들고 “이걸로 00이 잡아볼까?” 라고 하면서 아동에게 다가갔고, 아동은 웃으면서 도망갔다. 치료자는 아동을 담요로 감싸 안으며 “잡았다!” 라고 외쳤고, 아동은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엄마는 못 안아. 엄마는 무거워서 못 안아.” 라고 씩씩한 듯이 말했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동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어머니와 아동은 뽀뽀를 하고 눈을 맞췄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6회기, 담요 활동 중)

모-자녀 치료놀이에서는 애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촉 놀이를 통해 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치료놀이는 유아가 어머니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을 증가시키며(김정혜, 2005), 언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놀이를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Haslam, 2010).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한 아동과 어머니와의 신체접촉 경험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은 어머니와 아동이 놀이를 통한 신체접촉의 즐거움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혼자서 놀이를 하였던 아동이 어머니와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며 친밀감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김효선, 2011). 또한, 아동이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머니의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진효재, 2015).

7) 주도 : “우리 이거 해볼까?”

어머니는 수용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힘이 생겨 아동과의 관계에서 점차 자신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어머니는 온정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아동에게 활동을 제시하였고, 아동은 그러한 어머니의 주도에 따라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

을 보였다.

누워있는 아동에게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자고 이야기하였다. “00아 노래 부를까? 노래 불러볼까?” 라고 말하며 놀이에 아동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6회기, 활동 시작 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보고 어머니는 친근한 말투로 “앉으세요. 언능~” 이라고 말하면서 생쥐 인형을 들고 치료자의 말투를 따라 하며 “00이 친구야~ 이리와.” 라고 하였다. “00이 친구야, 이리와. 빨리 와.” 라고 말하며 조금씩 아동에게 다가갔다. 아동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웃으면서 생쥐 인형의 팔을 잡고 인사를 하였다.

(7회기, 인형전달 인사 중)

아동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때, 치료자의 말투를 따라 하며, 치료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놀이에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치료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면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수준에 맞게 다가가고,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놀이를 통해 어머니가 아동의 관심을 놀이로 유도했으며, 아동 수준에 알맞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김정혜, 2005) 것이다.

8) 협동 : “같이 하자.”

어머니는 아동의 욕구를 수용하며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 뽀뽀를 발로 터뜨리기 등의 아동이 원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아동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의 개입에 더욱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로션이 뿌려진 뽁뽁이 위로 올라가서 발로 뽁뽁이를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동을 따라서 발로 뽁뽁이를 터뜨렸다. 치료자가 “와아~ 엄마도 발로 터뜨린다!” 라고 말하자 아동은 즐겁게 웃었다.

(8회기, 뽁뽁이 활동 중)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하는 놀이는 부모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켰고,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의 개선을 가져온다(장미경, 1998).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주도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며,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로 격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치료놀이를 통해 어머니가 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아의 주도에 따르는 모습은 유아의 애정표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언어적 표현과 미소가 많아지게 된다(김정미, 2000).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하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로 함께 협동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점차 증가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신문지를 가지고 가서 “엄마 배 만들어줘.” 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말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동은 어머니를 도왔다. 어머니가 신문지를 접으면 함께 꺾꺾 눌러주었고, 신문지를 뒤집어 주었다.

(7회기, 신문지 활동 중)

블록을 꺼내며 어머니는 “뭐 만들까? 집 만들어볼까?” 라고 이야기하였고, 아동은 “응” 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함께 집을 만들었다. <중략> 아동과 어머니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의견을 들으며 “우와 대단하다. 00이 똑 똑하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략> 아동과 어머니는 함께 도와가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사후 MIM 블록 만들기)

아동과 어머니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고,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와 아동은 서로 함께하는 법을 몰라 어색해했던 초반과 달리 즐거워하며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2.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요인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제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왔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기회도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어머니는 많은 갈등 상황을 겪어야 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나씩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은 어머니에게 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한국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그런 어머니는 자신의 서툰 언어가 혹여나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였고, 아동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며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런 어머니의 옆에서 아동은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고, 아동과 어머니는 함께하기보다는 따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한국어 공부를 하러 센터에 다녔고, 집에 와서는 숙제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날들을 보냈다.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는 혼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어머니에게 놀아달라며 떼쓰지도 않았다. 아동에게 어머니는 자신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또, 어머니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놀아주는 방법을 알지 못해 아동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아동은 그런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보이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몹시 부족했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로 함께하는 것에 어색함을 보였던 어머니와 아동은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점차 변화해가기 시작하였다. 신체접촉을 어색해했던 아동은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는 아동의 흥미를 끄는 방법을 사용해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주도하는 등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보였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상호작용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 편안한 분위기

가장 큰 변화요인은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 부족한 언어와 다른 외모가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사람을 만나면 서툰 언어가 부끄러워서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라고 물어볼까 봐 두렵다고 말하였다. 또한, 옷도 예쁘지 않게 보일까 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 봐 집에서 잘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가는 것 외에는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누워있고,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시장도 일 년에 한두 번 밖에 가지 않아 길도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어머니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낯선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일 것이다. 어머니는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며, 서툰 한국어, 다른 외모에 혹여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간이 된다. 어머니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인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자녀 치료놀이는 어머니가 치료자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어머니의 일상이 담긴 가정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어머니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놀이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며, 치료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놀이가 이루어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가정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자녀 치료놀이는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동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집’이라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동은 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함께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어머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신체접촉 및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가정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자녀 치료놀이가 어머니와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자녀 치료놀이는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변화를 이끌었다. 아동은 가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표현이 증진된 모습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에게 “엄마가 1등이야. 엄마 제일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어머니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아동과 놀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가정이라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된 모-자녀 치료놀이는 아동과 어머니, 치료자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정계숙 외, 2012),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표현을 증진시켰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이끌어냈다.

2) 모델링과 코칭 : 놀이하는 방법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수행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이윤희, 2007),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몰라 어색해 하였으며, 놀이가 길게 지속되지 못하였다.

치료놀이에서 ‘놀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고 있어(성영혜, 오지현, 홍정희, 김송아, 2009) 상호작용을 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지켜보거나 직접 함께 참여하면서 치료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게 한다. 어머니는 치료자의 상호작용 방식 즉, 건강한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였으며,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치료자는 어머니가 모델링한 상호작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어머니는 회기 중간에 치료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치료자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어머니에게 직접 적용하여 아동이 느끼는 감정과 양육을 어머니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구조가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치료자는 어머니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규칙을 명확하게 하였고, 어머니가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즐거운 놀이를 주도하도록 도와 양육 행동에서 합리적인 지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또, 적절한 정서적 반응 및 언어적 개입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모델링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방법 및 놀이방법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치료자는 어머니의 에너지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코칭하여 어머니가 따라 할 수 있

도록 도왔고, 과제 활동을 통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강한 상호작용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3) 수용 : 자신감 증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가족을 돕기 위함과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겠다는 생각, 한국사회에 대한 환상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팜티웬짱, 김영순, 박봉수, 2014). 하지만 남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적에 비해 가장 높은 언어 문제(정기선, 2008)를 경험하고, 가정생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송복희, 2011) 다른 국적에 비해 편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다(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4).

어머니는 자신의 부족한 언어와 다른 외모 등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낯선 한국에 와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어렵고, 위로와 같은 수용적이고 양육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치료자의 격려와 지지 및 수용 경험은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고, 치료놀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아동은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어머니와 치료자에게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어머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안정된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아동은 수용 경험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 애정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욕구와 주도를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4) 함께 : 애착 증진

어머니와 아동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은 드물었다. 하지만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은 함께 놀이를 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양육적인 활동은 편안함과 애착을 증진시켜 눈 맞춤과

신체접촉을 하는 횟수가 확연히 증가하였고, 서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는 모습 등 함께하는 모습이 증가하였다.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함께 하는 경험 및 감정 공유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서로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함께하는 경험은 서로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어머니의 노력이 아동의 변화를 이끌었고, 아동의 변화가 어머니를 변화시켜 서로의 상호작용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상호작용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A.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인 모-자녀 치료놀이를 가정에서 진행하여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진행되는 모-자녀 치료놀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모-자녀 치료놀이 효과가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연구대상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가 참여하였고, 주 1회 총 8회기에 걸쳐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및 사후 검사로 모-자녀 상호작용 검사(MIM), 가족 협동화, 양육 행동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매회기 관찰, 녹음 및 녹화, 전사, 동료 검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자녀 치료놀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모-자녀 치료놀이는 신체접촉 및 친밀감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아동은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신체접촉을 어색해하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육 활동의 경험을 통해 신체접촉을 어색해하는 모습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매 회기에 이루어진 손 닦아주기, 로션 놀이와 같은 양육 활동의 반복은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을 촉진시켰고, 편안한 관계를 이끌어 냈다. 편안한 관계의 형성은 아동과 어머니에게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과 눈 맞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 활동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 아동은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치료놀이가 유아가 어머니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을 증가시켰다는 김정혜(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자녀 치료놀이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아동은 어머니를 자신의 놀이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혼자서 놀이를 했던 전과는 달리 어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였다. 이는 가족과 함께 놀이하자는 경험이 부모와 자녀가 놀이를 통한 신체접촉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혼자서 놀이를 하였던 아동이 부모와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며 친밀감을 변화시킨다는 김효선(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언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놀이를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Haslam,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양육활동의 반복된 경험은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을 촉진시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이는 치료놀이가 모-자녀 간 애착 형성 및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혜, 2005; 김윤경, 2006; 박랑규, 1999; 전애영, 2004; 윤미원, 2005; 이상희, 2003; 윤정희, 2007; Booth & Lindaman, 2000; Jernberg & Booth, 1999; Lindaman, 1996; Makela et al, 2004; Rubin, 1996)를 지지한다.

둘째, 모-자녀 치료놀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수용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는 다소 투박하고, 통명스럽게 느껴지는 말투와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치료자의 격려와 지지 및 수용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치료자의 말투를 모델링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변화하였다. 또한, 양육 활동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아동과의 애착을 형성하게 된 어머니는 아동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과 차분하고 안정된 말투로 아동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이는 지시, 통제와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던 부모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차분하고 안정된 말투와 미소, 웃음 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김효정, 2015)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은 어머니가 제공한 신뢰롭고 편안한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치료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여 아동이 표현한 자신의 이야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동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이 모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모의 심리는 아동의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송현정(2006)의 주장을 지지하며, 부모로부터의 수용과 지지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간 상호작용 변화가 일어난다는 선우현(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는 아동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에 개입하기보다는 지켜보는 모습으로 아동의 욕구를 수용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치료자의 격려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어머니는 아동의 욕구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수용 받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함께하는 즐거움은 모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진효재, 2015)를 지지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이 무반응, 회피와 같은 부정적 행동과 부정적인 가족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노남숙, 한유진, 2014)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는 치료자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로 격려하는 모습도 나타났으며, 아동의 도전을 격려하여 아동이 더욱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증진 놀이는 부모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켰고,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장미경, 1998)를 지지한다.

셋째, 모-자녀 치료놀이는 모의 주도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어머니는 초기 단계에서 아동을 이끄는 것에 서툰 모습을 보였으며, 때로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치료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모델링하고, 치료자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점차 온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고, 구조화를 통한 안정감과 수용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으로 아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자녀와 긍정적인 놀이를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구조화 놀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정 및 변화를 돕고 건강한 상호작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선우현(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회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던 놀이 코칭과 과제 활동은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놀이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는 모-자녀 치료놀이에서 실시한 놀이를 활용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의 주의를 이끌었으며,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치료놀이를 통해 어머니가 유아의 관심을 놀이로 유도했으며, 유아 수준에 알맞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김정혜(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모-자녀 치료놀이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문화가정 모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성이 크게 상승하였다. 모는 사전에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 모-자녀 치료놀이의 기본 원리인 접촉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이 아동과의 신체적인 애정 표현 및 친밀성 표현의 증가를 가져왔고, 양육 행동의 애정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화된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경험하고, 치료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의 코칭이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자녀 치료놀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유아들의 관계가 향상되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유아와의 애정적 상호작용이 높아졌다는 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 (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가정 중심 프로그램이 다른 유형의 중재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양육 행동 증진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Love et al., 2001).

다섯째, 모-자녀 치료놀이는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변화를 이끌었다. 아동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전과 달리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등 자기표현이 증진된 모습이 나타났다. 또, 어머니에게 “엄마가 1등이야. 엄마 제일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아동과 놀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가정이라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된 모-자녀 치료놀이는 아동과 어머니, 치료자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정계숙 외, 2012),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표현을 증진시켰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냈다. 또한, 치료자의 지지가 바탕이 된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의 코칭이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고, 가정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모-자녀 치료놀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켰고, 수용적인 관계의 촉진을 통해 모의 주도성과 양육 행동을 변화시켰으며, 가정에서의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모-자녀 치료놀이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영향성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요소의 상호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신의 서툰 언어와 다른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익숙하지 않은 시선들로 인해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생각해 보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어머니에게 ‘집, 가정이라는 공간’은 낯선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며,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따듯한 위로가 되어주는 공간이 된다.

가정이라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된 모-자녀 치료놀이는 아동과 어머니, 치료자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어(정계숙 외, 2012)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체접촉을 증가시켰다. 안정된 공간에서의 수용 경험은 어머니의 자신감을 향상시켰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정계숙 외, 2012),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냈다. 이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부모가 자기 능력에 대한 충족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Coleman & Karraker, 1997; Newman et al., 1996)와 관련이 있다. 또한, 아동과 어머니의 일상이 담긴 가정에서 진행된 모-자녀 치료놀이는 회기가 끝난 후에도 어머니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놀이를 훨씬 수월하게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녀와 놀이하는 방법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은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상호작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져(정선화 외, 1999) 치료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모델링 한 상호작용 방식을 실시해볼 수 있도록 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 변화를 가져왔고, 가정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자연적인 일과를 사용한 가정방문 중재가 부모와 아동의 놀이 및 상호작용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Dunst et al., 2001)와 관련 있다. 가정방문 지원의 개별화된 접근은 생활 속에서의 양육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박성신, 2007),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의 코칭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부모의 교수적 기술과 지식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Beckman et al., 1993; Caro & Derevensky, 1991; Campbell et al., 1995; Love et al., 2001)와 일치한다. 또한 가정에서 실시한 모-

자녀 치료놀이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가정 중심 프로그램이 다른 유형의 중재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양육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ove et al., 2001)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노력과 수용 및 어머니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끌었다. 어머니는 아동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졌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활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Caro & Derevensky, 1991; Dawson et al., 1991; Chen & Haney, 1999; Dunst et al., 2001)와 일치하며, 가정 중재를 중심한 모-자녀 치료놀이가 다문화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변화요인을 가정이라는 공간, 모델링과 코칭, 수용경험,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도출하였고, 변화요인들이 상호연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하는 편안함은 수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고,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이루어져, 모델링과 코칭을 더 잘 시도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변화요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동과 어머니, 치료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어머니의 변화는 아동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변화된 아동은 어머니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변화요인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은 ‘가정’에서 실시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한 모-자녀 치료놀이는 다문화가정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도움으로써 상호작용의 부적절한 행동방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학령기 시기의 발달 단계에 도움을 주며,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고자 할 때 예방적 차원으로써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한 모-자녀 치료놀이는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모델링과 코칭을 통해 자녀와의 놀이를 직접 경험하고, 건강한 상호작용 방식을 시도해봄으로써 양육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녀와의 상

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와 함께한 놀이 경험에서 즐거움과 수용 경험을 한 학령기 전 자녀에게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은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또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가정 중재를 통한 모-자녀 치료놀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했으며, 다문화가정의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구체적 맥락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다문화가정에서 상호작용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가정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다문화가정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여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가정에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추후에 학교부적응과 또래 관계 문제 등 여러 부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모-자녀 치료놀이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호작용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기간의 치료임에도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변화를 보였으나 총 8회기로,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변화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기별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의 지원을 통해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문화가정에게 가정에서의 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놀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정 중재를 중심한 모-자녀 치료놀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상호작용 방식과 양육 방법 및 놀이 방법을 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꼈다.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에게 양육 방법과 놀이 방법에 대한 코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에게 가정 중재를 중심한 모-자녀 치료놀이를 실시하여 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알아보는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의 효과성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섯째, 모-자녀 치료놀이 내에서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의 노래와 놀이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어머니에게 자신감과 유능감을 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병재 (2005). 한국 민속 무용과 발레가 유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405-435.
- 강보라 (2009). 집단치료놀이가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석광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아정 (1993).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문해환경과 유아 읽기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숙 (2016). 모-아 집단치료놀이가 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자원부 (2007).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구효진,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2(6), 43-67.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2000). 가족미술치료. 대구: 동아문화사.
- 권유화 (2014). 모-자 미술치료과 의사소통 및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희 (2008). 부자가정의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 (2015). 수정된 전통놀이가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유미숙, 유재령 (2010). 놀이치료학, 학지사.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 문화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애, 선우현 (2016).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모자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4), 381-403.
- 김명애 (2016).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모의 양육태도에

- 미치는 영향 : 모자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30(5), 119-135.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59-176.
- 김민정 (2009). 위탁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81-292.
- 김민화, 신혜은 (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아도학회, 29(2), 155-176.
- 김상림, 안효진, 이시자 (2011). 유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1(2), 147-171.
- 김연숙 (2016). 부모자녀놀이치료가 농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 박용임 (2016). 부모자녀놀이치료가 농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2), 17-34.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학회, 18(3), 63-106.
- 김유경 (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체계. 보건복지포럼. 103, 47-72.
- 김유리, 오종은 (2013). 다문화가정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Bowlby 애착이론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3(1), 41-64.
- 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하, 전성숙, 변은경 (2014).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16(2), 1031-1043.
- 김이선 (1991).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언어·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0). 부모-아동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혜 (2005). 치료놀이를 활용한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 : 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수 (2017). 가정방문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변형영유아교육학회, 4(2), 27-43.
- 김현미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11).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15).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2001).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문화(multiculture)의 의미. 영유아보육연구, 7, 1-18.
- 남덕임 (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희 (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아, 양명숙 (2013). 다문화가정의 모-자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4(1), 143-161.
- 노남숙, 한유진 (2014).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135.
- 류경숙 (2008). 학령기 아동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3(6), 49-63.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37(9), 141-151.
- 민혜영 (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변인 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자, 김송이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랑규, 윤진영 (2008). 다문화 가정의 모-자 애착 증진을 위한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61-82.
- 박선주 (2001).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신 (2007). 뇌병변장애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방문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연, 성숙자,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전춘애, 안지영, 임희수, 이사라, 한세영, 이주연 역 (2007). 부모자녀관계. 교문사.
- 박소영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은희 (2009). 모-아 집단치료놀이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및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아동복지연구, 7(2), 51-69.
- 박임자 (2012).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임자, 이경숙 (2012).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2), 281-301.
- 박점자 (2015).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모의 양육효능감,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능력.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점자 (2015).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242-258.
- 서광희 (2012). 모-아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모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희 (2012).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 육아정책포럼, 30호,

6-16.

- 서정아 (2016).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김경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성미영, 김정현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애착 및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한국아동교육학회, 19(3), 23-39.
- 성영혜 (1997). 가족놀이치료. 상조사
- 성영혜, 김영진 (1997). 아동복지, 동문사
- 성영혜 (2000). 치료놀이. 서울: 형성출판사.
- 성영혜 (2004). 치료놀이를 통한 모-아 상호작용 증진 효과-MIM 을 이용한 효과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9(4), 375-390.
- 성영혜, 이창미, 김연진, 김유진, 신현정 (2004). 치료놀이를 통한 영아보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성영혜, 오지현, 홍정희, 김송아 (2009).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치료놀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손남숙, 이숙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7.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송미경, 이은경, 신호정. (2009). 아동, 청소년상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3), 1627-1643.
- 송복희. 2011.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영혜 (1998). 놀이치료 적용. 대구대학교출판부.

- 송요현 (2009).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요현, 현은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아동학회지, 31(2), 35-52.
- 송유민 (2010). 전통놀이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정 (2006). 놀이치료에서 내담부모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59-73.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정 (2008). 아동상담에서의 어머니 변화 - 치료놀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0(2), 65-97.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숙, 양지에 (2014). R-러닝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의 탐색: 유아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4(1), 91-112.
- 안재욱, 우주영 (2013). 치료놀이를 적용한 요리활동 부모교육이 한부모가정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7(1), 1-26.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0(1), 53-68.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승희 (2016).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부모의 반응성 연구. 한국보육학회, 16(4), 129-147.
- 양옥경, 김연수, 이방연(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여성가족부 (2011). 보도자료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4).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13(1), 293-319.

- 원혜준, 김명순(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69-184.
- 유승애, 이지현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한국육아지원학회*, 4(2), 51-68.
- 윤은정 (2006). 테라플레이 놀이치료가 입양어머니와 아동의 애착형성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희 (2006). 저소득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집단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초연, 장영애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1). 5-16.
- 윤형수.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서울: 한울.
-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0).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 (2013).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34(4), 143-162.
- 이상은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3). 母-兒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5). 母-兒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시설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복지연구*, 3(3), 1-24.
- 이상희 (2005). 모-아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모-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0(3), 21-40.
- 이선미,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순심 (201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04). 사회 ·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

- 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2). 83-105.
-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희.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한지현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향주 (2011). 신체접촉놀이를 활용한 부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의 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준구 (2016). 다문화가정의 모-아 관계 증진과 유아의 배려행동 향상을 위한 집단 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경 (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1998). 아동 중심 놀이치료를 이용한 부모 자녀관계 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1), 59-78.
- 장애연 (2011).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희 (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35, 295-314.
- 전경숙, 송민경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전유경 (201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모-자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영 (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 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한국가족학회, 20(3), 161-186.
- 정계숙 (2011).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관계 문제를 가진 유아 모자의 상호작용 지원 프로그램 효과 연구: 치료놀이 중심 기관 및 가정 중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3), 55-81.
- 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 (2012).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효과 연구: 모자 치료놀이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26.2.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 68-103.
- 정명희 (2013).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회, 20(8), 258-277.
- 정선화, 김승돈, 김상진, 황선관, 이소영, 조혜경, 이지수, 이지희 (1999). 소집단 부모 교실 운영과 교육과정. 서울: 도서출판 상지무학사.
- 정정화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나 (1998).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현미, Hoang Thi Viet Ha (2017).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경로에 따른 혼인동기와 가족과의 관계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1), 143-166.
- 진효재 (2015).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 홍달아기 (2005). 국제결혼부부의 갈등과 대처에 대한 연구. 생활지원개발연구, 7, 1-17.
- 최나야,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 27(2), 225-268.
- 최연실 (2007). 결혼이민여성의 일상생활의 발달과 적응: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창립20주년추계학술심포지엄자료, 115-141.
- 최연실, 이순형, 문무경 (2008).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한국인간발달학회, 15(3), 225-248.
- 최은정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놀이신념이 아동의 상호작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 2010년도 출입국통계연보.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보도자료 “2015년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사상 최고.”
- 탄티튀히엔 (2006).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2).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6). 시군구/합계출산율. 서울: 통계청.
- 팜티웬짱, 김영순, 박봉수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20(4), 137-164.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실 (2007). 치료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불안정애착 유아의 애착 표상 및 사회적 능력 향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님 (2014).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할만족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9, 287-315.
- 한상영 (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 행정안전부 (201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2012). 2012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 행정자치부 (2014). 외국인 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 허미화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와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교육환경 고찰. 한국유아교육학회, 28(1), 265-282.
- 허진 (2006).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 (2004).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지적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32(2), 181-191.
- 홍미기 (2009). 결혼이주 다문화가정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임 (2006).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미 (2014). 모-아 치료놀이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안정애착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미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상심, 정옥란(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관련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1994). Head Start Home Visitor Handbook.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96829).
- Ardelt, M., and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 944-972.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r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5(307-337).
- Beckman, P., Newcomb, S., Frank, N., & Filer, J. (1993). Innovative practices: Providing support to familie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 Early Intervention, 17(4), 445-45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yanton, J., Gagnon, A., Johnson, C., & Hatem, M. (2008). Predictors of women's perceptions of the childbirth experience. *JOGNN*, 37, 24-34.
- Campbell, J., Croll, J., & Ouvrier, S. (1995). *Families First: Learning from Parents through Evalu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393605).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13-146.
- Caro, P., & Derevensky, J. (1991). Family focused intervention model: Implementation and research finding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1 (3), 66-80.
- Chen, D., & Haney, M. (1999). *Promoting Learning through Active Interaction. Project PLAI. Final Repor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432118).
- Clark, J. (2001). *Parent-Focused Intervention: A Meta Analytic Consideration of Risk and Outcome Categor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459921)
- Coleman, P., & Karraker, K. (1997). Self-efficacy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 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ruse, S. T.,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dds, M. R. (1987). Family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6, 341-357.
- Dawson, P., Robinson, J., Butterfield, P., Doorninck, W., Gaensbauer, T., & Harmor, R. (1991). Supporting new parents through home visi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4), 29-44.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 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 Des Lauriers, A. M. (1962). The experience of reality in childhood schizophrenia.
- Dunst, C., Bruder, M., Trivette, C., Hamby, D., Raab, M., & McLean, M. (2001).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of everyday natural learning opportunity.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2), 68-92.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0), 12-33.
- Gardner, F., Ward, S., Burton, J., & Wilson, C. (2003). The role of mother - child joint play in the early development of children's conduct problems: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2(3), 361-378.
- Garland, C. (Ed.). (1992). *A Guide to Early Intervention: A Resource for Families* .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61964)
-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M., Wigal, T., and Jensen, P.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705-714.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71, 83-103.
- Gross, D., Conrad, b., Fogg, L., & Garvey. T. (1993). What does the NCATS measure. *Nursing Research*, 41, 260-265.
- Guralnick, M. J. & Neville, B. (1997). Design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s to promot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M. J. Guralnick(Ed.), *The*

-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Baltimore, MD: Paul Brookes.
- Hanft, B., & Pilkington, K. (2000). Therapy in natural environment: The means or end goal for early interventi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12(4), 1-13.
- Harty, M., Alant, E., & Uys, C. J. (2006).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language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with a communication disabilit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 144-154.
- Haslam, D.(2010). Family sculpting with puppets. In L. Lowenstein, (Ed.). *Creative Family Therapy Techniques: Play, Art, and Expressive Activities to Engage Children in Family Sessions*. Toronto, ON:
- Jernberg, A. M. (1979). *Theraplay*.
- Jernberg, A. M., Booth, P. B., Koller, T. J., & Allert, A. (1982). *Preschoolers and school age children in interaction with their parents: Manual for using the Marschak Interaction Method (MIM)*. Chicago, IL: Theraplay Institute.
- Jernberg, A. M. & Booth, B. (1999).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 through attachment-Based Play*.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emp, P., & Turnbull, A. P. (2014). Coaching with parents in early intervention: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synthesis. *Infants and Young Children*, 27(4), 305-324.
- Kim, J., & Mahoney, G. (2004). The effects of mother's style of interaction on children's engagement: Implication for using responsive intervention with parent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4(1), 31-38.
- Kim, Y. O., Stevens, J. H. (1987). The socialization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63(3), 200-206.
- Landreth, G. L. (2002). Therapeutic limit setting in the play therapy relationship.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6), 52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Lindaman, S.(1996). Theraplay for adopted children. *Adoptlin therapist*, 7(1), 5-8.
- Lindaman, S. L., Booth, P. B., & Chambers, C. L. (2000). Assessing parent - child interactions with the Marschak Interaction Method (MIM).
- Lobo, M., Barnard, K., & Coombs, J. (1992). Failure to thrive: a parent-infant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7, 251-261.
- Love, J., Kisker, E., Ross, C., Schochet, P., Brooks-Gunn, J., Boller, K., Paulsell, D., Fuligni, A., & Berlin, L. (2001). *Building Their Futures: How Early Head Start Programs are Enhancing the Lives of Infants and Toddler in Low-Income Families. Vol. 1: Technical Report.* (ERIC Reproduction Service No. 454952).
- MacPhee, D., & Miller-Heyl ,J. (2003). Parent Self-Efficacy Mediated the Impact of Family Interven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480095).
- Mahy, A. & MacQuarrie, J. (2000). Theraplay: Innovations in Attachment-Enhancing Play Therapy. In E. Munns(Ed) *Theraplay and Parent Counselling* (pp.79-93).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Makela, J., Vierikko, I.(2004). Theraplay research at the SOS children's village finland. Unpublished manuscript. The Theraplay Institute, Chicago, Illinois.
- Marchand, J. F. & Hock, E. (2003). Mothers' and father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in the marriage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2), 227-239.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47-556.
- McBride, S., & Peterson, C. (1997). Home-based early intervention with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is doing wha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17 (2),209-233.

- Newman, C., Pendleton, B., Ahern, M., DeGorge, V., & Pangas, C. (1996). The Decker Family Development Center: Supportive Data of an Intervention Model for Multi-Risk Famil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405344).
- Olson, S. L., Bates, J. E., & Kaskie, B. (1992). Caregiver-infant interaction antecedents of children's school-age cognitive ability.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309-330.
- Patterson, G. (Ed). (1990).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Hissa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tterson, P. H. (1990). Control of cell fate in a vertebrate neurogenic lineage. *Cell*, 62(6), 1035-1038.
-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307-322.
- Powell, D. R. (1993). Inside home visiting programs. *The Future of Children*, 3(2), 23-38.
- Raab, M., & Dunst, C. (2004). Early intervention practitioner approaches to natural environmental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7(1), 15-26.
- Raver, S. A., & Childress, D. C. (2015). Family-centered early intervention: Supporting infants and toddlers in natural environment. Baltimore, MD: Brookes.
- Rubin, P.(1996). Understanding Homeless Mother: The dynamics of adjusting to a long-term shel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hicago.
- Rush, D. D., & Shelden, M. L. (2011). The early childhood coaching handbook. Baltimore, MD: Brookes.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homaidis, L., Kaderoglou, E., Stefou, M., Damianou, S., & Bakoula, C. (2000).

Does early intervention work? A controlled trial. *Infants and Young Children*, 12(3), 17-22.

Vahedi, S., Farrokhi, F., & Farajian, F. (2012).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7(3), 126.

Wagner, M., Spiker, D., & Linn, M. (2002).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s as teachers program with low-income parents and childre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2(2), 67-81.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비디오 촬영 동의서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동 의 서

- 1 나는 본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담당연구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 2 나는 본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3 이 연구에 나와 자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어떠한 강제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 4 나는 이 연구에서 수집될 나의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학교 당국 및 연구윤리심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7 나는 서명 후 동의서를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아동법적	아동성명:	서명:	서명일:
대리인	아동성별:	출생년월:	아동과의 관계:
연구담당자	성명: 이가연	서명:	서명일:

소 속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부록 2> 비디오 촬영 동의서

비디오 촬영 동의서

본인 _____은(는) 본 연구 기간 동안 프로그램 내 모든 내용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담당자 이가연이(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대한 촬영 자료가 사용되는 목적은 어머니-자녀 간의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및 슈퍼비전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정보나 얼굴이 포함된 장면은 부모와 아동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본 비디오 촬영 취지와 목적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자유의사로 본 과정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아동법적 대리인	아동성명:	서명:	서명일:
	아동성별:	출생년월:	아동과의 관계:
연구담당자	성명: 이가연	서명:	서명일:

소 속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부록 3> 양육 행동 검사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손님이 있더라도 아이가 풀칠하기, 자르기, 나무 썩기 같은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도와준다.					
2	아이의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일 때면 곧 아이에게로 간다.					
3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책이나 그 밖의 책들, 그리고 레코드 등을 찾아본다.					
4	아이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5	춥거나 비 오는 날에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기, 색칠하기, 바느질과 같은 놀잇감들을 찾아본다.					
6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					
7	전화하는 도중, 아이가 가위나 실, 풀 등을 찾지 못한다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대화를 잠시 중단한다.					
8	아이가 정해놓은 취침시간을 어기면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엄격히 다스린다.					
9	화낼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에 아이가 화를 내더라도 나뉠대로의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본다.					
10	아이가 건방진 태도로 말을 하면 공손하게 말하도록 타이른다.					
11	아이가 집안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잊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준다.					
1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준다.					
13	아이를 껴안거나 쓰디듬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한다.					

14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옳은가를 말해 준다.					
15	아이의 TV시청 시간을 제한해 놓고 그대로 지킨다.					
16	아이가 아플 때는, 중요한 모임에 참여할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아이와 함께 지낸다.					
17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친 듯이 보이면 즉각 달려간다.					
18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본다.					
19	아이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에게 즉시 달려간다.					
20	밤에 잘 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에게 즉시 달려간다.					
21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와 함께 지내려고 무척 애쓴다.					
22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3	친구 집을 방문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간다.					
24	아이와 같은 생각(의견)을 가지면, 나도 그렇다고 아이에게 솔직히 말한다.					
25	집안일이나 마당청소 같은 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					
26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도, 아이를 껴안거나 쓰다듬어 준다.					